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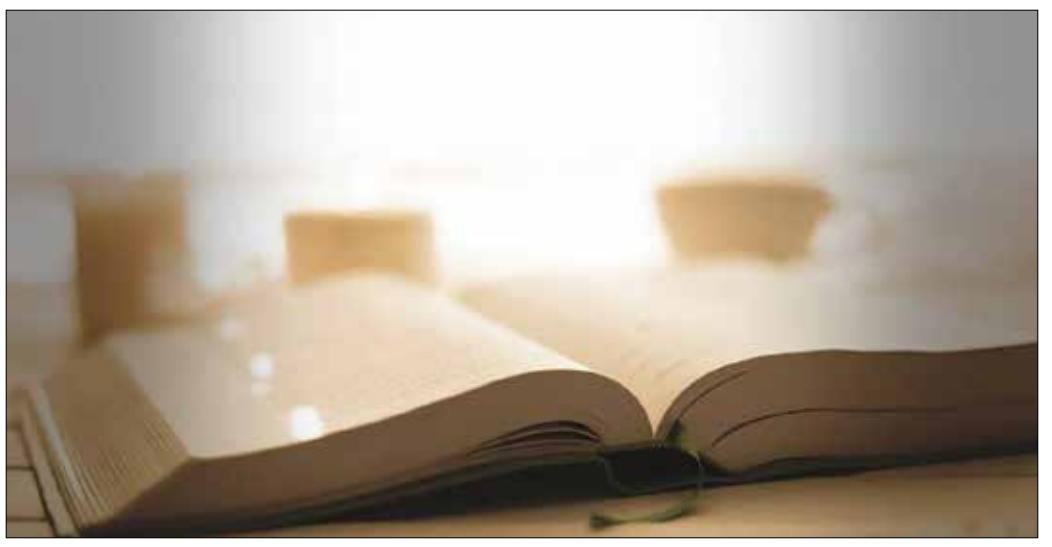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3년 7월 22일 (토) 제 1929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성경 전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성경신학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는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방법

최근 한 성인 남자 성경 공부에서 한 대학생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구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설명했다. 불과 이십 년 전,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를 제외하고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도 성경 속 각각의 책을 연구하고 그게 성경이라는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 바뀐 걸까? 차세대 지도자들이 성경의 상호 연결성이라고 가정하는 지점에까지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걸까?

수십 명의 저자가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언어로 기록한 방대한 책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젊은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성경신학 연구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은 복음주의 교회와 특히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개혁신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경신학이 널리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여전히 새로운 연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새로운 작품이 약 1,000쪽 분량의 방대한 책으로 탄생했다. 안드레아스 J. 코스텐버거와 그레고리 고스웰이 쓴 Biblical Theology: A Canonical, Thematic, and Ethical Approach이다

코스텐버거는 성경 연구자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다. 그는 성경 입문서, 주석, 해석학 안내서, 사역 자료 등 수십 권을 썼다. 의심할 여지 없이, Biblical Theology는 수십 년에 걸친 코스텐버거의 목회와 저술 속 많은 내용이 함축된 초석에 해당한다. 거기에 더해서 공동 저자인 시드니 크라이스트 칼리지 출신의 그레고리 고스웰은 구약에 대한 더 깊은 수준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두 명의 구약과 신약 학자는 우리가 성경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이 새 책과 관련해서 코스텐버거와 서신을 주고받았고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어떻게 성경 속 66권의 모든 책에 다 나름의 역할을 부여하는지 설명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이며 조직신학과 같은 다른 학문이나 신학적 성경 해석(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TIS) 같은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성경신학은 다양한 성경 본문을 지속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성경 저자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추구한다.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성경신학이 연결에 관한 학문이라면 조직신학은 구성에 관한 학문이다. 성경신학에서 우리는 정경 속 다른 목소리를 서로 연결한다. 같은 구약이지만 오래된 책과 상대적으로 후기에 기록된 책들 사이의 연결,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 등등이다. 그러다 보면 더 오래된 구약 본문을 인용하는 구약 본문을 인용하는 신약의 저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6:35; 8:12; 10:7, 11; 11:25; 14:6; 15:1) 속 예수님의 "나는 ~이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40-66장 속 여호와에 대한 이사야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 같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또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라고 스스로 밝히신 내용을 상기시킨다. 성경신학은 역사적, 귀납적, 서술적 학문이기에, 우리는 본문 자체의 용어로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 사이의 연결 또는 "텍스트 간 연결"을 섬세하고 주의 깊게 그리려고 노력한다. 더불어서 성경 용어, 원래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신 역사에서 그들의 위치와 시간이 갖는 의미 등을 존중하면서 본문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 성령, 교회 같은 중요 주제별 분류에 기초해서 신학적 구성에 관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조직신학은 성경 자료를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대적 맥락에서 배열함으로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성경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설계에 충실한 제자훈련을 위한 '이중 귀 기울임'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중 귀 기울임을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의 빛에 비추어 "지금"을 살아낼 수 있다

제자훈련은 단지 성경과 교리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성경과 세상(요 3:16), 영성 형성과 삶의 형성 두 지평의 연결이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자연 만물을 모두 포함한다. 제자훈련은 하나님과 인간, 성경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자훈련을 위해서는 존 스토트가 강조한 '이중 귀 기울임'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서 필수 불가결하다. 이중 귀 기울임은 하나님과 복음을 신실하고 효과적으로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 성경과 인간과 세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된다. 스토트는 이중 귀 기울임은 먼저 '이중 거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열중해서 세상을 직면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으로 도피하는 것과 세상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못할 만큼 순응하는 것 모두를 거부한다. 도피와 순응은 정반대의 실수이지만, 이 둘 다 기독교적 선택은 아니다(존 스토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33-34). 그는 우리는 이런 이중 거부 대신에 이중 귀 기울임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귀 기울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 때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써야 하지만, 세상에 귀 기울 때는 비평적 자세와 세상의 처지에 공감하며 복음이 어떻게 세상과 관련되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들어야 한다.

〈9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4면
푸른초장
백운영 목사

16면
신앙에세이
류응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BS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3
3rd Healing Camp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나만의
마음근력 키우기

'보이지 않는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모님,
그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엘피스 패밀리가 힐링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일정: 8/21(월) - 23(수) I 대상: 목회자의 아내 I 회비: $100
장소: Mater Dolorosa (700 N Sunnyside Ave, Sierra Madre, CA 91024)
예약 및 문의: 박운송 목사 213-700-9928

Elpis

발행인 칼럼

자연재해와 영적상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온 세상이 폭염(暴炎)과 폭우(暴雨)로 비틀거리고 있다. 이런 자연재해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사람이다. 인간의 환경파괴나 대비태세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환경파괴가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기존 여러 구조를 약화해 그것이 여러 자연재해를 몰고 오거나 막을 수 없게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 자연재해 속에 인재(人災)가 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여러 상식적 사회적 과학적 분석만으로 무책임하게 덮을 일이 아니다. 분석에서 멈추어 서 있지 말고 더 나가야 한다. 자연재해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를 보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애굽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은 또 어떤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아합과 이세벨 때의 기근도 마찬가지이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수님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렇다. 자연재해 속에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읽어내야 한다. 그 영적인 상태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일한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를 강타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그랬다. 허리케인 앞에 미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지만, 무엇보다 그 당시 미국의 영적 상태의 민낯을 잘 보여주었으니 그 당시 메모리얼 병원에서 있었던 안락사 사건이 그랬다. 태풍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후 큰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에서 후속 구조 지원 작업이 진행되던 중, 메모리얼 병원에서 무려 45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카트리나에 의해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메모리얼 병원 인근도 물에 잠겨 병원이 완전히 고립되자 병원의 몇 의료진들이 34명의 중환자를 모르핀과 미다졸람을 투약해 안락사시킨 것이었다. 그 당시의 느슨한 구조 시스템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던 병원에서 거동하기 힘든 중증 환자들까지 다 구조할 수 없었기에 그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진들이 그들에 대한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다. 그 안락사와 관련된 의료진들이 검찰로부터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는 불가피한 안락사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회복될 듯한 청교도적 관점과 삶의 방식이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졌다. 미국은 너무 빠르게 하늘 지향적 삶에서 지상 지향적 삶으로 다시 돌아섰다.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미국의 최선은 모든 것에 그래야 하듯이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인간의 최선으로 떠맡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했다. 불순종이 깊은 원인인 자연재해로부터 온 비상한 상황을 늘 비상한 기도로 돌파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겠는가. 현재 자연재해가 미국에도 한국에도 유럽에도 가득하다. 지금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이다.

TGC, 상사로서는 힘들기만 한 담임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

"강단에 선 목사는 얼마든지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나의 직장은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이 상사인데, 직원과 업무 관리 면에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임목사를 상사로 모시고 일하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긴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일마다 우리에게 격려와 영적 성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병원에서도 환자와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모범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만난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목회자에게는 관리해야 할 은사와 더불어(롬 12:6-8), 조심해야 할 약점이 있다. 강단에 선 목사는 얼마든지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얼마든지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견고한 신학, 매력 넘치는 가르침, 자애로운 성품을 기대하며 고용한 목사가 적시에 필요한 의사소통, 세부 사항에 요구되는 세밀한 주의 집중, 그리고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에 전혀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성-속

우리는 종종 세상 직장과 교회 직원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지곤 한다. 그건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담임목사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한 행동을 할 거라는, 아예 불가능할 수준의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동시에 세상 직장이라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부분까지 허용 내지 간과하면서, 그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 일하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적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 똑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마 5:48)?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도 세상 직장에서 일하는 형제자매들과 같은 수준의 탁월함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골 3:23-24)?

행여라도 지금 당신은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여 담임목사에게 조직 및 관리 기술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대화를 피하도록 하고,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실한 관리에 대한 조사

당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내가 알 수는 없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비현실적인 기대, 부적절한 의사소통, 또는 껄끄러운 상사에게 하는 보고가 잇따르는 고된 일상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어쨌든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 상황 분류

위기 상황 최초의 대응은 필요에 따른 부상자 분류이다. 직장 내 대인 관계라는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사와 분류가 필요할 수 있다. 담임목사에 대해서 가진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 보라. 아래에 소개한 범주에 따라서 종이에 분류해 보라.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우려 사항을 정리하라.

• 간과할 사항: 당신이 처한 상황 중에는 잘못을 눈감고 넘어가야 할 어떤 측면도 있을 것이다(잠 19:11). 이미 해결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품고 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있는가? 담임목사를 떠올릴 때마다 심할 정도로까지 한심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에 관한 사소한 일은 무엇인가?

• 논의할 사항: 어떤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약간의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담임목사의 행동이나 기대와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요청을 해야 할까? 그에게서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지금 당신의 목표는 담임목사가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기술을 향상하도록 돕는 것임을 기억하라. 몇 마디의 좋은 말(잠 25:11)이 그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용서를 구하거나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기회를 만나는 것이다(엡 4:32).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3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동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이 함께 기다립니다.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모 집 학 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 (설교학)	2년	M.Div 학위 학력자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전형료($30)

평신도 음악원 개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부설 평신도 음악원(음악학과)를 뉴욕지역 교회 찬양팀을 위하여 2023년 가을학기부터 개설합니다
1)기타반 2)키보드반 3)하모니카반 입학 상담 문의 : 646-708-1011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3년 9월 1일(금) 오후 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 학 시 험: 2023년 9월 2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3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문 의 처: 학감 정기태 목사 :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정 전도사 : 646-708-1101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특 전 ◆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시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4) 목회학석사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성경 전체를 어떻게 통합적...

〈1면에서 계속〉

TIS에 관해서 물어야 할 핵심은 사람들이 "신학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신학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길을 계시하기 위해 쓰였다고 받아들이는 의미라면, 성경신학과 TIS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TIS가 성경의 신학적 해석을 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주석가들은 항상 본문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진다. TIS의 경우에 성경 접근과 관련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하고 연역적 전제이지만, 성경 신학에서는 본문을 귀납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저자들이 지닌 신념과 확신에 따라서 관련된 성경 구절 사이의 연결을 그린다.

우리는 성경 언어와 석의에 대한 능력을 갖춘 성경학자들이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최고의 모델은 실무자들이 관련한 전문 지식을 테이블에 가져와 함께 작업하는, 다양한 분야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믿는다.

Kaiser, Schreiner, Thielman, Guthrie 또는 Marshall의 작품을 보면서 바득바득 이를 가는 신학교 사람들에게 당신의 접근 방식은 그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 66권 각각의 책에 담긴 '정경' 및 '윤리' 섹션이 당신의 고유한 접근 방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당신이 언급한 학자들은 신약신학 또는 구약신학만을 저술한 반면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신학이다. 사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복음주의 영어권에서 성경신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여기서 특히 Beale, Schreiner, Thielman, Witherington을 말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중에서도 딱 한 사람(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신약인데)만이 전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우리 두 사람의 경우, 우리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꺼내놓고 논의함으로 진정한 협업 프로젝트를 이뤄냈다. 나와 그레고리는 성경신학을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지닌 귀납적, 역사적, 그리고 서술적 학문으로 이해하는 공통된 방법으로 이 작업을 완성했다.

66권으로 이뤄진 하나의 도서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저술들 사이의 연관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66권 각각의 책이 나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가 한 권 한 권 책 별로 접근해서 이번 책을 완성한 이유이다. 각각의 책에 대해서 우리는 주요 주제, 윤리적 가르침, 그리고 정경적 공헌을 다뤘다. 정경적 공헌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서 그 책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발견한 내용을 종합하고 모세 오경의 윤리나 복음서의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포함시켰다.

마지막 장에서는 왕국, 언약, 십자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12가지의 중심이 되는 구약과 신약 주제를 논의함으로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시각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야말로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의 핵심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 속 메타 내러티브의 핵심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신학 분야가 이루어내는 독특한 공헌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아는 한, 주류 성경신학 학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식으로 이 주제를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 카슨과 함께 당신은 성경신학의 총체화(totalizing) 경향을 일축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성경신학의 단일 센터 추구에 관해서는, 단일 센터라는 "성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돈 카슨의 회의론은 충분히 근거가 있으며 또한 그런 식의 노력이 필연적으로 환원주의적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성경신학의 척도는 성경의 다양성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달려있다는 카슨의 현명한 조언에도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성경신학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절제된 가족 대화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이 은유를 성경신학에 적용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명확하다. 성경적 자료를 연결하고 종합함으로 우리는 모든 성경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경 간 대화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정경에 크게 기여하는 약 12개의 구약과 신약 주제를 찾아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가르쳤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은 사랑이라고 했으며 요한의 사랑 윤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약 750쪽에 걸쳐서 우리는 여러 주제와 윤리적 가르침을 논의함으로 성경신학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다.

책 전체에서 당신은 정경 속 책 순서의 중요성과 또한 순서가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정경 순서가 성경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는 무엇이 있을까? 정경 순서에 대한 다양한 방식(schemas)이 성경에 접근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책의 위치가 그 책을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다른 책과 관련해서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하나씩 예를 들겠다.

헬라어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배치된 것은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읽는 데 필요한 기본적 연결고리를 만든다. 애통하는 목소리 중 하나가 예레미야라면, 이것은 심판의 선지자와 고통받는 백성 사이의 화해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백성을 정죄한 선지자가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정경 속 위치로 볼 때, 애가는 전례(liturgical)에 필요한 다섯 개의 축제 두루마리(메길로트) 중 하나였다. 이런 식의 배치는 그 책이 역사적 위기라는 맥락 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리어 미래에 만날 위기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이 책은 그 어떤 고대 사본이나 정경 목록에서도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 저자가 같고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사도행전 1:1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신약 정경이라는 삶 속에서 사실상 별개로 살았고, 그들의 근접성 부족은 각 권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어졌음에 관한 진술이다. 정경적 관계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특히 누가복음보다는 정경적 블록으로서 다른 복음서와 고리를 맺고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함으로 신약의 증언에 통일성을 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후에 많은 편지를 쓰고 또 많은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사명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바쁜 목회자가 성경신학을 설교 준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건전한 성경신학에 의해 만들어진 설교는 그렇지 않은 설교와 어떻게 다른가?

목사는 강해설교뿐 아니라 성경신학적 설교도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본문을 설교하건 간에, 전체 정경의 틀에서 보아야 한다. 이 말은 설교 본문을 성경 속 관련된 다른 내용과 연결하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목사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시켜야 한다. 동시에 뒤에 나오는 성경 내용과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수많은 연결 지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한다면, 그는 영적 풍요를 경험하고 더불어 시야가 넓어질 것이다. 더불어서 그는 교인들을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로 끌어들이고, 그들 스스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정경적인 접근 방식을 모델로 제시하게 된다.

어떻게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 목사가 역사적 맥락에 근거해서 본문을 면밀히 읽고, 그 이해에 기초하여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교인들 사이의 진정한 연결점을 분별함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한다. 또한 삶의 도전과 실존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경의 음성을 갈망하고 있다.

당신이 가장 기대하는 성경신학의 새로운 경향은 무엇인가? 향후 20년 동안 미래의 학자들이 탐구할 새롭고 유익한 방향은 무엇인가? 혹시 몇 년 안에 우려해야 하는 성경신학의 어떤 경향이 있는가?

〈9면으로 계속〉

시 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가장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중국의 3개 회사(샤오미,오포,비보)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8% 정도입니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이 세계 최다 스마트폰 수출국인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CATL이 34%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국제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8%로 1위입니다. 얼핏 보면 중국산 배터리가 세계를 다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을 제외한 지구촌 전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즘 뉴스를 대하다 보면 같은 사건을 놓고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함으로써 무엇이 바른 내용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파랑색과 흰색 중에서 어느 색깔을 더 좋아하느냐?'와 같은 개인의 취향이나 관점의 문제를 넘어 흰색을 파란색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소위 말하는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서 심심찮게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지도층'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민망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착각하거나 오해로 인하여 이렇게 대화의 내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똑같이 인식하지만, 의도적으로 사실들을 굽게 하여 말하는지 때론 그 마음의 저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가장 중심에 정치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정치인들의 끝없는 변론과 다툼을 전 국민이 매일 들으면서 한국사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의 객관성에 대해 모호함을 취할 수도 있다는 아주 교묘한 성품으로 유도해 갑니다.

한국 인구보다 대략 2.4배가 더 많은 일본에서의 위증죄 건수는 2007년 기준 148건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1,388건으로 인구대비 무려 24배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안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20%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위증죄 건수는 전체 국민 중 단 1%도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 인구를 가진 일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지도층에서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진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는 결코 정직하고 바른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흐름을 끊는 길은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는 길입니다.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가장 단순하게 주님처럼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용기와 신실함이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함을 느끼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강단과 삶의 영역에서부터 진실된 언어가 쏟아지기를 소망하며... 샬롬.

hankschoi@gmail.com

*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중국 시장 제외) (단위 : GWh)

순위	제조사명	2022. 1~3	2023. 1~3	성장률	2022 점유율	2023 점유율
1	LG에너지솔루션	13.0	18.0	38.8%	29.3%	28.0%
2	CATL	8.7	15.6	79.6%	19.7%	24.4%
3	Panasonic	8.5	11.9	38.8%	19.3%	18.5%
4	SK On	6.7	7.0	4.6%	15.2%	10.9%
5	삼성SDI	4.2	6.5	54.4%	9.5%	10.1%
6	BYD	0.2	1.1	633.9%	0.3%	1.7%
7	AESC	1.1	1.1	-1.5%	2.5%	1.7%
8	Farasis	0.2	0.7	229.8%	0.5%	1.1%
9	PEVE	0.5	0.6	19.2%	1.2%	1.0%
10	Sunwoda	0.3	0.4	53.2%	0.6%	0.7%
	기타	0.8	1.3	57.0%	1.8%	2.0%
	합계	44.2	64.2	45.3%	100.0%	100.0%

(출처 : 2023년 4월 Global Monthly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 SNE리서치)

*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단위 : GWh)

순위	제조사명	2022. 1	2023. 1	성장률	2022 점유율	2023 점유율
1	CATL	10.5	11.2	6.5%	37.6%	33.9%
2	BYD	3.3	5.8	78.8%	11.6%	17.6%
3	LG에너지솔루션	2.8	4.3	51.3%	10.1%	13.0%
4	Panasonic	2.5	3.7	45.3%	9.1%	11.2%
5	삼성SDI	1.2	1.8	52.6%	4.2%	5.5%
6	SK On	1.6	1.5	-1.2%	5.6%	4.7%
7	CALB	1.5	0.8	-43.1%	5.2%	2.5%
8	Guoxuan	0.9	0.7	-26.6%	3.3%	2.1%
9	EVE	0.5	0.6	31.3%	1.8%	2.0%
10	Sunwoda	0.5	0.5	2.2%	1.9%	1.6%
	기타	2.7	2.0	-26.2%	9.6%	6.0%
	합계	27.9	33.0	18.1%	100.0%	100.0%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NYU 의대 훼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2차 세미나

일시: 7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302 LA CA 90006

"여러분이 참여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은 LA 카운티의 한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날짜	주 제	강 사
7/7(Fri)	자살 Suicide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강의 전 유투브에서 "수잔 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7/14(Fri)	정신 분열증 Schizophrenia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강의 전 유투브에서 "수잔 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7/21(Fri)	성격 장애 Personality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7/28(Fri)	수면장애 Sleep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8/4(Fri)	낙인 Stigma	양 에스더 박사 미주 장신 가정상담학 교수
8/11 (Fri)	섭식장애 Eating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워크샵 참석 베네핏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네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이 사진에 얽힌 간증을…

이 사진에 얽힌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7살 때 여의도에서 열렸던 74 성령 폭발대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C.C.C. 대학생과 같이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필자는 이 사진이 찍혔음을 전혀 모르고 43년을 지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이 사진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새 예배당 건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입주 허가를 신청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홀가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는 절망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건축회사와 정산도 마쳤습니다. 이제 입주 허가만 기다리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축회사에서 미쳐 정산하지 못한 추가 금액 73만 달러 청구서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포의 글귀가 P.S.에 적혀 있었습니다. '2주간 안에 갚지 못하면 입주 허가 신청서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73만달러는 커녕 7천불도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매각된 구 예배당은 비워줘야 하고 새 건물에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 된 밥에 코가 빠진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집의 서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금새 절망과 비관스러운 마음으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때 어느 교우가 유투브 찬양곡을 보내면서 듣고 힘을 내시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찬양은 틀었지만…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찬양은 끝나고 자동으로 새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김준곤 목사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곧이어 74 성령폭발 대회의 눈에 익은 장면들이 배경 사진으로 떠 올랐습니다. 어! 내가 거기 갔었는데… 그리고 4번째 배경 사진이 떴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고압선에 감전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지 키보드를 누르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는 남편이 무슨 일이 났는지… 놀라서 이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언제 때 당신이야!…'

이 때 꽃무늬 남방에 체크 바지 걸치고 아내와 한창 교제하던 때였기에 아내는 그 때의 지금의 남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마'였습니다.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영혼 깊숙이 새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나는 신학을 중단하고 평신도로 서리집사로 사업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빚만 잔뜩 지고 진퇴양난의 슬럼프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부모와 아우들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짐이 이만저만이 무겁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업은 점점 더 적자로 빚만 늘어났습니다. 대책이 없을 때에 도피책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내에게는 매우 미안했지만… 첫아들이 태어났지만… 기쁨은커녕 어깨는 더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과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얼마나 달리겠나? 늘 내 소명을 괴롭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희미하게 붙잡고 살림만 하던 아내에게 빚투성이 사업을 맡기고 나는 하는 수 없이 신학교로 복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강의실의 첫 학기는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온통 내 맘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사업을 맡았으니 걱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채플 시간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다 맡겨라! 강한 도전을 받은 후에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아내는 일년도 안돼 남편과 시부모의 빚까지 다 갚는 재주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것이 임마누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7년의 신학을 마치고 목회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첫 개척 목회 3년에 성인 270명이 모이는 안정된 목회를 임마누엘만 믿고 사임했습니다. 더 어려운 곳을 찾아서 도전하려고… 그래서 10년 된 이민교회에 목사가 6번 바뀌었다는 토론토 이민 교회로 갔습니다. 오로지 21명의 교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고 주일 오후에 예배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1월 초순에 나는 기도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적한 교외에서 폭설에 큰 밴 속에 홀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구촌에 나 혼자 존재하는 외로움으로 온몸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아내는 일년도 안돼 남편과 시부모의 빚까지 다 갚는 재주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것이 임마누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7년의 신학을 마치고 목회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첫 개척 목회 3년에 성인 270명이 모이는 안정된 목회를 임마누엘만 믿고 사임했습니다. 더 어려운 곳을 찾아서 도전하려고… 그래서 10년 된 이민교회에 목사가 6번 바뀌었다는 토론토 이민 교회로 갔습니다. 오로지 21명의 교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고 주일 오후에 예배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1월 초순에 나는 기도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적한 교외에서 폭설에 큰 밴 속에 홀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구촌에 나 혼자 존재하는 외로움으로 온몸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포 공항까지 나오셔서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선배 목사님이 붙잡을 때 그냥 눌러 있었으면 편안한(?) 목회의 길이 열렸을텐데… 이 때 갑자기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이 불쑥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마…오 주님! 잠시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자동차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통회하며 회개 기도와 찬송을 한없이 불렀습니다. 그 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도 주님은 새 힘을 주셨고 3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안정된 목회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년의 토론토 목회를 마치고 뉴욕으로 임지를 옮기라고 해서 지금 27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43년만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사진을 보면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70만 달러의 남은 금액도 주님의 방법으로 아주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이 임마누엘 축복의 사진을 큰 액자에 담아 눈길 닿은 곳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I'll be with you forever!!!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4-11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람,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귓속말로 알려줍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환상으로 알려주거나 혹은 말씀 묵상할 때 큰 글자로 확대해 보여줍니까?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큰 의미에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한 개인, 한 집단과 국가적으로 나타났으며 때가 차매,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향하신 뜻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팔리는 품목을 족집게처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주십니까? 개발자가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 기도할 때 로또 맞듯이 눈앞에 펼쳐 보여 주실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어떤 전공이 앞으로 잘 나갈지 아니면 어떤 논문을 써야 대박 날지 기도하면 알려주실까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구글 회사가 더 전망이 좋을지 아마존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 하나님께 알려달라면 알려주실까요? 그런 것은 점집에 있는 점쟁이에게 가야 더 어울립니다. '너 누구와 결혼해라, 너 무엇에 투자하라'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 고집 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놓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데 있습니다. 작정기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만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를 미워하시냐고 합니다. 그런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도우미 역할밖에는 더 이상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기 때문에 내 뜻을 고집스럽게 우격다짐으로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그런 떼를 쓰는 기도는 그쳐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인물들에게는 직접 나타났지만 지금은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책이라서 The Living Bible 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도 오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움직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때와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그 법을 써 주셨습니다. 렘 31: 33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인격체인 우리와 인격체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제, 그것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인격을 선한 모습으로 형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고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며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큰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무척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불편하여 탄식하시고 우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환희로 반응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행복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26년간 선교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말이 "인샤 알라" 입니다. 알라의 뜻 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샤 알라, 나쁜 일이 있어도 인샤 알라. 차사고가 나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다 인샤 알라 하면서 이겨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인샤 알라로 덮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상황을 바꾸려 하면 알라의 뜻을 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엔 굉장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론으로 가장한 허무주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변명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때론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부추기는 말 때문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졌더라도 눈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주저앉고 때론 포기하게 됩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견뎌내도록 하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뢰할 때 비록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과정을 걸으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Para Cleitos 라는 의미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기다리는것 잘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특히 언제 이뤄질지 정확한 시간을 모르면서 기다리라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삶에서 힘들 때 빨리 건져주시지 않을 때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바른 기다림은 우리게 유익을 줍니다. 때론 일이 지나고 볼때 오히려 기다려서 더 감사한 적 많습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영적 근육을 키우고 꿈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조급한 마음에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그냥 시간 흘려보내며 무의미하게 보냅니까? 때론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면서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 속에 어떤 유익을 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세계성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은 결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기록은 기독교가 예루살렘서 로마로 후에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기까지 숱하게 이방종교에 부딪치고 이방철학에 부딪치고 이방문화에 부딪치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변증해나갔느냐 그 귀중한 비결과 그 생명적 역사를 증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같은 핍박이 있었던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어섰는가는 사도행전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전파에 귀중한 지침서가 되기에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의 주제니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게 하는 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없는 기독교리는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복음 전파의 사건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행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핍박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고용하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하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그 변화된 삶으로 복음이 퍼져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딱 한 마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과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바로 성령께서 친히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까지 다 고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큰 일을 진행하는 줄 압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착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더 힘이 생기고 더 능력있게 일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그 뜻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개인적인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에 내가 포함될 때 큰 뜻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 어떤 일도 진행하지 말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도록 여유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할 때 그 일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ypaek@hot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모든 태아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 아이오와주에서 온 기쁜 소식!!

아이오와 주 주지사, 킴 레이놀즈가 "heartbeat bill" 에 서명하는 모습

지난주, 7월 14일 금요일, 디모인(DesMoine)에서 열린 Family Leadership Summit에서 아이오와주 공화당 주지사인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아이오와주에서는 '태아 심장박동 Fetal Heartbeat Law' 법안을 통과시키는 발표했습니다. "태아심장박동 법안"이란 6주가 지난 심장이 뛰는 태아를 죽이는 것을 막는 낙태금지법안(Heartbeat bill)입니다. 이로써 아이오와주는 태아를 보호하는 심장박동 법안을 통과시킨 13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달 초 성명에서 " 낙태의 비인간성에 맞서 계속 싸울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모성 계획을 지원하고, 아버지와 육아를 장려하며, 강력한 가족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2022년 6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을 내린 이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많은 주 중 하나이다. 아이오 주 외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주와 낙태에 제한을 두는 법을 통과시킨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Alabama. Arkansas, Idaho,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Missouri, Oklahom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est Virginia, 아리조나, 플로리다, 유타, Georgia, N. Dakota, 위스컨신 등 총 21개의 주와 현재 낙태지지자들이 "낙태 금지법안"에 반대 소송을 받은 인디아나, 와이오밍, 오하이오 까지 총 24개의 주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아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심장박동법안은 화요일 레이놀즈가 소집한 특별 세션에서 아이오와주 하원에서 56-34로 통과되었습니다. 32명의 모든 민주당 의원과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10명의 의원이 불참했지만 56명의 남은 모든 공화당에서 찬성함으로 통과가 되었다. 주 상원은 곧 32-17로 32명의 공화당이 태아살리기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한 명과 민주당 전체인 31명, 총 3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태아 심장박동 Fetal Heartbeat Law' 이란?

태아 심장박동 법은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순간 엄마 뱃속의 태아를 의학적, 과학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임을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유산을 겪은 여성, 의사가 엄마와 태아의 생명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태아, 응급상황의 태아를 면제하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엄마에게 보내신 태아 생명을 고귀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도록 격려하는 매우 성경적이고 건강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매우 많으나 이들은 무슨이유로 생명을 살리는 법안에 적극 반대를 한것일가요? 그 이유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으며 얼마나 도덕적이며 상식적일까요? 알아보니,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 6주가 지나도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여성들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함께, 아이오와 낙태론 자들은 수요일에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낙태론자들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낙태를 반대하는 인권운동단체중 하나인 ACLU의 법률 책임자인 리타 베티스 오스틴(Rita Bettis Austen)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시행되는 날마다 아이오와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금지법을 막으려 합니다."라고 아이오와 ACLU의 법률 책임자인 리타 베티스 오스틴(Rita Bettis Austen)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 주장과 정당화로 낙태를 통해 계속 돈을 벌려는 단체와 플랜페렌후드들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하트비트 법으로 인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799명의 아기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Ron DeSantis)도 지난 4월 유사한 심장박동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돕스 판결 이후 15주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했었습니다.

텍사스나 플로리다주와 유사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많은 주에서는 낙태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킴과 함께 낙태를 선택하기보다 생명을 선택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엄마가 될 여성과 태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양, 부모프로그램, 더 나은 위탁 양육 시스템, 실제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장려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텍사스와 테네시에서는 낙태 대안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많은 프로라이프 주에서는 입양 세금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이 우리 세금들을 사용해준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세금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Deep Blue State 들이 통과시키고 지금도 통과시키는 태아를 무분별하게 죽이는 법안들은 우리 세금을 태아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에 크리스천들이 이 일에 조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편 139:13-16 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집사입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절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메카닉 일과 불신영혼에게 틈틈이 복음전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과연 본업이고 어느 것이 부업인지요?

- 가디나 이집사가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전도, 그리스도인의 부업은 직업"

A: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였습니다. 행 5:42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이고 부업이 직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는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크리스천 닥터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은 미션 필드(Mission field) 입니다. 정비소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정비소를 운영하는 크리스천 메카닉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비소는 미션필드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옵니다.

조지포어맨(George Foreman) 그는 천재적 복싱선수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프로 권투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973년 무패의 조 프레이저를 이기고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974년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해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처했다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 1977년 지미 영과의 12라운드 경기 후 탈의실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거의 죽음 직전에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에 따르면, 그때 죽음의 사자에게 붙들려 지옥으로 끌려가던 중 하나님에게 자신을 살려줄 것을 애걸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 이후에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포악한 성격도 바뀌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도하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비를 벌기 위해 은퇴 후에 다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빌 4:13절의 말씀을 팬티에 새기고 링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챔피언 마이클 무어를 이기고 45세에 다시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상을 회복했을 때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위해 권투를 하십니까? That's my profession, I just moonlight as a boxer. 저는 전도가 주업이고 권투가 부업입니다.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선물 The Gift

코로나로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급격하게 갑자기 바뀌고 집에서 학교수업과 어색한 여름방학을 처음 시작했던 4년 전 부터 아들과 함께 방학이 시작되면 Daily devotion 시간을 매일 함께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교회학교 선생님께 선물 받은 〈He calls me friend〉라는 목회와 카운슬링, 그리고 작가로 유명한 'Larry Dugger'의 남성들을 위한 Devotion 책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여름 11살이 되는 아들에게 저자의 어린 시절과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은 성경말씀과 함께 위트있는 공감과 은혜를 주며 우리모자에게 덥고 습한 여름을 이기게 하고 있다.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며 매일 행복한 고민으로 11번째 생일선물을 미리 온라인 샤핑하는 우리 아들처럼, 래리 목사님도 자신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그것은 10살 성탄에 받은 BB gun이었고, 이 선물을 산타에게 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착한 아이로서의 생활로 노력했다고 책에 쓰셨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에 대해 서술했다. 예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죽음으로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천국에 가는 티켓은 세상 은행에 있는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으며, 우리의 친구되신 예수님의 선물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함께 묵상시간을 갖던 아이는 그 구절이 끝나자 '아멘!' 하며 자신은 벌써 큰 선물을 받은 크리스천보이이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하다며 고백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 그러면, 우리 웨슬리 이번에 생일 선물 필요 없겠네?" 하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더니, 그건 예수님의 선물이고 엄마는 엄마의 선물을 달라며 어림없다는 단호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렇게 즐겁게 그날의 묵상을 기도로 함께 마치고 아이는 자러 방에 들어갔다. 마침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며 두 모자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한다. 오늘 묵상내용과 아이와의 대화를 얘기하며 남편과 함께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 함께 더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 시간 우리교회를 섬기시고 소방관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은퇴하신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Bert 할아버지의 메모리얼서비스를 앞두고 기도할 때 마다 눈물이 난다. 먼저, 주일 예배시간에 일찍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뒷모습이 너무 그립고 그의 빈자리가 벌써 너무 크다. 너무 똑똑하고 아름답던 아내(이곳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최초의 라틴어교사)가 일찍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려 어려움을 겪자, 오랜 시간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정성과 희생을 다해 돌보며 그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셨다. 교회 아이들을 인자한 미소로 사랑했으며, 훌륭한 인품은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았다. 항상 따뜻한 허그와 언어로 우리부부를 격려하고 사랑하셨다.

긴 시간 아내를 케어하며 자신도 점점 노쇠해져 힘드실텐데도 지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늘 〈선물〉 이라고 소개하고 얘기하던 Bert 할아버지가 소중한 선물 캐롤라인과 함께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한다.

For it is th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songjo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굶어라"…케냐 사이비 종교 집단 사망자 400명 넘어

케냐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라"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강요에 목숨을 잃은 신도가 4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현지시간) 케냐 일간 더스탠더드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방 도시 말린디의 '기쁜소식 국제교회' 인근 샤카홀라 숲에서 이날 1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 수가 403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수사관들이 지난 4월 '기쁜소식 국제교회' 인근 숲에서 처음 신도의 시신을 발견한 이후 매일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적십자에 실종 신고된 인원이 613명에 달해 당국은 시신 발굴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검 결과 굶주림이 희생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일부 시신에서는 목이 졸리거나 구타 또는 질식사한 흔적도 발견됐다. 마틴 무네네 수석조사관은 "보고서에 따르면 발굴된 희생자 시신 중 일부에서 장기가 사라졌다"며 "인체 장기 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회 지도자 폴 은텡게 맥켄지는 택시 운전사 출신으로 4월 중순부터 신도들을 강제로 아사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과거 극단주의 전과가 있는 맥켄지가 그간 어떻게 법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키투레 킨디키 케냐 내무장관은 맥켄지가 테러 및 집단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밥상 물가 또 위협… 흑해곡물협정 결국 오전 6시 만료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했던 흑해 곡물협정이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18일 오전 6시(한국시간·러시아 시간 0시)를 기해 만료됐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지난 1년간 3280만t의 밀·콩·보리·옥수수 같은 곡물을 수출했다. 다시 높아진 식량 안보 우려에서 밥상 물가도 위협을 받게 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17일 "자정에 만료되는 흑해곡물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결국 러시아 모스크바시간으로 17일 자정인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6시까지 협정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17일부터 2개월간 이행된 흑해곡물협정의 4번째 연장은 무산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을 같은 해 7월부터 3차례 연장했다.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만은 열어둬 아프가니스탄, 수단 같은 주요 수입국의 식량난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는 이날 협정 만료를 앞두고 자국산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위해 국영 농업은행 로스셀호스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 연결해 달라고 유엔에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은 수락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즉각 협정 실행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흑해곡물협정의 재개 여지를 열어뒀다. 흑해곡물협정 만료는 곡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다량의 곡물을 수입해온 국가의 식량난은 세계적인 수급난으로 번질 수 있는 탓이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지난 1년간 흑해를 통해 총 3280만t씩 수출됐다. 이 수출길이 막히면 이집트, 레바논처럼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세계적인 식량 수급난은 우리 식자재 물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이날 부셸당 6.81달러로 3.0%,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5.21달러로 1.4%씩 상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식량 공급 안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대화했다. 흑해곡물협정은 유지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만료 통보에 대해 "기아를 무기화하고 세계 식량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케리 美특사, 中총리 · 외교수장과 회담… 왕이 "우리는 오랜 친구"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리창 총리와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각각 만나 미중 관계와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이날 오전 9시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왕이 위원을 만나 "중국과 미국은 기후 협력을 통해 양국의 외교관계를 재정립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며 "회담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두 나라에 새로운 출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기후 문제에 대한 우리 사이 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케리 특사를 '라오 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칭한 뒤 "우리는 양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고 말했다. 케리 특사와 왕 위원은 각각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장관)으로 활동하며 양국의 외교정책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또한 왕 위원은 "기후변화 협력은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양국 인민의 인식과 지지,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가 필요하다"며 "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평등한 대화와 소통을 진행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리 특사는 리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다. 리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케리 특사를 만나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중요한 나라로, 양국의 협력 강화는 서로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현재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임무는 막중해 중·미를 포함한 각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결집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배출량을 줄이고 자금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하며, 개도국도 힘이 닿는 데까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협력 정신을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 우려를 존중하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리 특사는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 양대 탄소 배출국"이라며 "양국 관계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등 시급한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케리 특사는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달 6~9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최근 미국 고위 인사로서는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반대로 가는 미 · 유럽 경제… 미 경기침체 가능성↓ vs 가난해지는 유럽

17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25%에서 20%로 낮췄다고 밝혔다. 올들어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크게 역전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으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형성됐다. 지난 13일 발표된 6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라 전달의 4.0% 상승을 크게 밑돌았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경기침체를 수반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강화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회사채 시장을 지배해온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BofA의 유리 셀리거 신용 전략가는 "미국 경기침체가 완만할 것이라는데 대한 큰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JP모건 체이스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글로벌 시장전략가 역시 "6월 CPI가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생산성 하락과 인플레이션 요인 상승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은 15조700억달러로 미국(26조8600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08년만 해도 유로존과 미국 GDP는 각각 14조2200억달러, 14조7700억달러로 엇비슷했으나, 지난 15년간 미국 경제 규모가 82% 성장한데 비해, 유럽은 6% 증가하는데 그쳤다. 싱크탱크인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5년 미국과 유럽의 1인당 생산 격차는 지금의 일본과 에콰도르 수준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하락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의 실질임금은 2019년 이후 약 3% 하락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3.5%, 그리스는 6%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질임금이 6%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WSJ는 "유럽은 고령화로 경제 및 생산성 성장이 부진했다"며 "게다가 코로나19 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에너지·식량 가격이 상승하며 수십년간 악화돼온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미국은 저렴한 에너지 가격 정책과 시민들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으로 소비지출까지 유지했다"며 "미국과 유럽은 정부 대응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사로서는 힘들기만 한 담임목사님..

〈2면에서 계속〉

• 해야 할 일: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앞에 두고도 망설일 수 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어떤 행동이 가능한가? 상황을 주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행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 식별할 사항: 상황 속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특히 부담을 주거나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건 무엇인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기도할 부분은 없는가? 당신 손에 들린 큰 결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 상황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행여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마 7:3). 또는 문제가 당신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담임목사와 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전체 직원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장로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마 18:15-17).

2단계: 기도

지혜를 구하라(약 1:5).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열되는 모든 사항을 앞에 놓고 기도하라. 담임목사의 관리 능력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딤전 2:1).

담임목사와의 짝 기도를 고려해 보라. 특히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문제라면 짝 기도는 더 필요하다. 세상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보통 혼자 책상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지만, 당신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일터 자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함께 기도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마 18:19-20).

3단계: 전진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처음에는 쉽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내버려두면 더 힘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관리 능력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에게 몇 가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가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게 초래하는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진하겠다고 결심하라. 담임목사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막 11:25).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정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과 담임목사뿐 아니라, 똑같은 좌절감을 겪고 있는 나머지 직원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함으로 교회 전체가 더 잘 교인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니, 관리 미숙의 문제나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따위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이 일을 더 잘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자랄 것이다.

by Miranda Carls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2. 민함나 (1888-1952)

민함나(閔함나)는 1888년 10월 20일에 경기도 부평군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14년 1월 20일에 하와이 이민선 차이나호를 타고 사진 신부로 하와이로 이주하여 서울에서 출생한 11살 많은 민의식과 결혼하고 오아후섬 하우라에서 거주했다.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이함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서 민함나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영어 이름을 Ham Na Minn으로 표기했다. 그녀는 한인기독교회를 섬기면서 대한인부인구제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겨레 사랑과 조국 독립을 위하여 활동했다.

민함나는 오아후섬 와히아와로 이동하면서 이곳 한인기독교회에 출석하였다. 하와이로 이주한 지 5년이 되던 1919년에 삼일 만세운동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달 15일에 부인공동대회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후원을 결의하였고, 그달 29일에 제2차 부인공동대회를 열고 대한부인구제회를 결성하였으며, 4월 1일에 하와이에 있는 모든 단체의 여성대표가 모여 대한부인구제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하와이 한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조국의 독립을 후원하는 데 그녀가 앞장섰다.

1930년 12월에 동지식산주식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 대한인부인구제회는 동지회측과 교민단측으로 분열되었는데 민함나는 동지회측 대한부인구제회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9월에 대한인부인구제회 통상대표회가 모였다. 마위 지방, 힐로 지방, 고나 지방, 호항지방 그리고 와히아와 지방의 대표가 출석하였는데 민함나는 이완순과 함께 와히아와 지방대표로 참석하였다. 민함나는 배신실과 함께 1938년에 대한인부인구제회 와히아와 대표를 지냈다.

민함나는 1939년에 대한인부인구제회 힐로 지방대표를 맡으면서 대한인부인구제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중앙부장 김해김을 보조했다. 그해 중앙부의 다른 임원으로는 서기 정사원, 재무 김유실, 이사원 안득은, 전영복, 김정숙, 엘리자베스 김이 있었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그 후 민함나는 호놀룰루 남쪽 카이무키에 집을 구매하여 이동하였다. 1940년 1월에 힐로 교회, 마우이 교회, 와히아와 교회 그리고 호놀룰루 교회의 평신도대표가 모여 평신도 대표회를 열었다. 그녀는 이종관, 김이제, 이원순, 김유실과 함께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평신도대표로 참석했다.

그달에 미포 동지대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민함나는 나성 대표가 되었고, 기타 대표로는 손노디가 몬태나를, 안현경, 민근호, 김이제, 문인화, 서기춘이 호놀룰루를, 김재한이 와히아와를, 김치현이 마우이를, 김일만이 힐로를, 홍진표가 기아후를, 이상옥이 코나를, 이영옥이 와이낙구를, 손노디가 몬태나를, 이원순이 뉴욕을, 김영기가 시카고를 그리고 배일진이 라나이를 대표했다.

1941년 1월에 한인기독교회 평신도 대회가 소집되었다. 민함나는 김창순, 이종관, 문인화, 이유실과 함께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대표로 참석하였고, 기타 참석한 자는 와히아와의 김국경, 힐로의 양흥엽, 마우이의 김치현, 나성의 김이제였다. 그런데 그해 2월에 알려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임원 명단에서 민함나는 정순이, 이영옥, 매튜조, 백인숙, 전영복, 심영신, 이복수, 김유실, 안득은, 엘리자베스 김, 조해나와 함께 집사였다.

그해 3월에 대한인부인구제회 제19차 대표회에서 민함나는 중앙부장으로 선출되어 그해 8월에 라나이를 방문하여 구제사업을 펼쳤으며, 1943년까지 중앙부장을 역임하였다.

1941년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13일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주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을 하나로 하기 위하여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에 심영신과 함께 민함나는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대표로 참석했다. 민함나는 동지회측 대표였고, 심영신은 국민회측 대표였다. 해외한족대회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에 동지회측과 국민회측이 각각 대표를 파송하는 등 1930년 이래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와 안창호 계열의 국민회로 분열되었던 미주지역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통합되었다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하와이 호놀룰루에 의사부를 두고, 북미 로스앤젤레스에 집행부를 두었다. 그해 5월에 의사부를 조직하였는데 위원장에 이원순, 부위원장에 안원규, 영문 비서에 김원용, 국문 비서에 도진호, 재무에 조병요와 손승운, 검사위원에 차신호, 국방위원에 검현구가 선임되었고, 민함나는 강상호와 심영신과 함께 의사위원에 선임되었다.

김창순, 이종관, 문인화, 김유실과 함께 민함나는 그해 12월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평신도 대표로서 1941년에 이어 1942년에도 선임되었다.

1942년 2월에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는 독립금 수봉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자금의 대대적인 모금을 꾀했다. 민함나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일에 뛰어들어 호놀룰루의 누아누우 길에서 릴리하 길까지 독립금 예약을 담당하였고, 다음 해까지 맡아 감당하였다.

주미 외교위원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간에 갈등과 분쟁이 확대되면서 1943년 12월에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탈퇴하자 동지회 대표로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에 참여한 민함나는 김영기, 안현경, 도진호, 정영옥 등과 함께 동지회와 결별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남아 활동하였다. 이듬해 5월에 민함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외교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그해 그녀는 대한부인구제회 회장을 맡았다.

민함나는 1946년 2월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 동포를 구제하기 위하여 결성된 전후 조선 구제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 외 임원으로는 부회장에 최준경, 총무에 엄에스더, 서기에 안정송, 회계에 김봉순과 권희경, 평의원에 박금우, 김보광, 정영옥 그리고 김순희가 있었고, 고문으로는 한국인으로 조광원과 정이조, 미국인으로 길버트 마을스 등 5명과 중국인 밀두렛 송, 필리핀인 엔 씨빌나뉴바가 있었다. 민함나를 중심으로 조선 구제위원회는 815광복 후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하여 의복, 신발, 담요 등 많은 구호품을 모아 국내에 지원했다.

1950년 1월에 병원에 입원한 민함나는 1952년 9월 4일 6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놀룰루 시내에 있는 오아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녀는 8명의 자녀를 두었고, 남편 민의식은 1965년 2월 14일에 소천하여 아내 옆에 누웠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나라 사랑을 높이 평가하여 민함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아랫줄 왼쪽에서 첫째가 민함나)

민함나의 묘비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t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lpistamily.org Tel.(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리챠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10장 회심하려는 분에게 드리는 지침 (2)

[지침 5]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범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의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분명하게 결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의 탐욕과 죄악된 즐거움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던져 버리라.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했으면 삭개오같이 보상하라.

[지침 6] 불신 친구를 버리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지금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친구를 바꾸라. 여러분의 필요한 친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죄를 같이 짓는 친구들을 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친구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물으라(행 9:19, 26; 시 15:4).

[지침 7] 자신을 주 예수님께 맡기라

여러분 자신을 영혼의 의사이신 주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성령과 말씀과 사역자들과 성령의 도구로써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격과 본성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 되시는지에 대해 연구하라.

[지침 8]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여 살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 만일 여러분이 오늘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달으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짧고 불확실하다. 만일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에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지체해 왔다. 여러분이 지체하는 동안 여러분의 회심은 점점 어렵게 되고 의심스러워지게 된다.

[지침 9] 온전히 회개하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살려고 한다면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총체적으로 회개하라.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몇 가지 죄는 버리고 나머지 죄는 계속 지으며, 여러분의 육신이 아끼는 것들을 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여러분은 마음과 의지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눅 14:26-33).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전혀 신앙적이

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세속적인 의와 육신적인 성공이나, 즐거움이나 안전함에 있어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이것이 신앙적으로 그럴 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공개적인 불신자만큼이나 확실히 지옥에 이르는 길이다

[지침 10] 결심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살려고 한다면 결단력 있게 하고, 마치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인 양 계속해서 망설이지 마라.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육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주인이며,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종말인지, 죄와 거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길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의 이전 정욕을 버리고 지금 분명하게 결심하라. 하루는 이 마음을 품었다가 또 다른 날은 저 마음을 품지 말자.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잡으라. 결단을 분명히 내려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결심하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연기하도록 시키기 전에 결심하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결심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할 것이다. 확고한 불변의 결심을 하라.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했다. 나는 메시지를 전한 것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다.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 밭에 심을 수도, 그 메시지가 역사하도록 할 수도 없다. 나는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하도록 강압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거나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도 없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설득과 지침에 주의 복을 허락하시며, 주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영혼의 가장 큰 사기꾼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소서!... 자만한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결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단을, 흔들리는 자들에게 견고함을 주소서!...죄인들의 눈이 이 글을 읽고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여 통곡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죄가 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그들을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데려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런 애처로운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의 영원한 영광은 빛날 것이옵니다. 아멘!"

[다음 호에서는 '리처드 백스터의 다섯 편의 기도문' 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younsuklee@hotmail.com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나됨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와! 참 좋다!"

하나님의 감탄사는 세상을 만드신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정말이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 그대로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어떤 존재도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사가 멈춘 순간이 등장합니다.

"어! 이건 안 좋은데!"

바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창 2:18)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에제르 케네그도(아담 곁에 서서 생명을 주는 근원자)'라고 부르며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창 2:1). 결국 마지막 부족함을 채운 존재가 여성입니다. 성(性)의 창조로 세상이 완성(complete)되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가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공개한 것은 2009년으로, 그 후 2018년에 개정판을 발행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미 5세 때 젠더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젠더와 생물학적 성을 정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유네스코 5~8세 성교육의 핵심목표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생물학적 성(性)을 거부하고 나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개념대로라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답다고 느끼면 남성을 선택할 수 있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답다고 느끼면 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패션계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치며 트렌드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나다움의 패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브랜드 카피(copy)를 앞세워 젠더리스(genderless),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이 패션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코르셋을 입는다는 당황스러운 유행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남녀 구분을 없애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역설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남녀의 구별을 없애고 남자를 여자로 보이게 하면서,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를 반복하는 혼란을 만드는지, 시대를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의 성(sex)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아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정확히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세상의 영(고전 2:12)은 교육과 문화, 정치와 법률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자꾸 물음표를 던집니다.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단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딱 맞게, 명작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라고 말씀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민 23:19)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라는 존귀한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나다움'이 아닌 나의 '나됨'을 알려줘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여성으로서의 부르심과 남성으로서의 부르심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위대한 정체성입니다. 성별은 내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성(性)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인간의 오만함은 다음 세대의 건강한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이것만으로 다음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이는 젠더 교육과 나다움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적 성교육, 좋아성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공은 부모와 교사에게 넘어왔습니다. '나됨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세력(엡 6:12)으로부터 이들을 건져내려는 부모와 교사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구역별로
한 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850)423-9700 Cell, (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내 꿈이 깨어질 때

스위스에 헨리 듀넌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 세계적인 거목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싶다는 야망이었고, 또 하나는 스위스 은행장으로서 불란서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드디어 듀넌트는 조국 스위스의 경제사절의 임무를 띠고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 황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제 막 실현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터로 출정한 직후에 파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듀넌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따라나섰습니다. 마침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하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난생처음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는 수 많은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생명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은 끝났어도 그는 거기서 남아 오랜 시간 동안 의사를 도와 부상병들을 처리하고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하며 어느 날 기도하는 중 그는 하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꿈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한다." 그는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꿈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여 스위스 최고의 재벌이 되겠다는 꿈은 사라졌지만 그는 하늘의 꿈, 평화의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몇몇 친구와 함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자를 돕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 유명한 적십자사입니다. 듀넌트는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때론 역경에 부딪혀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나의 깨어진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보십시오. 그리하면 과거 어떤 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조국을 위한 삶으로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songkpak@hotmail.com

7월 월례조찬기도회 참가자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7월 월례조찬기도회

제 4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준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1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418차, 2023년 7월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에서는 몽골 현지교회인 새생명교회 죠수아 몽흐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몽흐 목사를 소개한 심상은 목사(OC교협 회장)는 "몽흐 목사님은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로 이제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땅 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몽골 현지 목사"라고 소개하고 "현재 몽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전도회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초대했다"고 소개했다. 죠수아 몽흐 목사는 "몽골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와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불교 신앙과 불교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학창시절에 몽골어도 모르는 어느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단지를 받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그 선교사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인 나성영락교회 출신 최순기 선교사님"이라고 자신의 신앙적 배경을 소개했다. 몽흐 목사는 최순기 선교사님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되어, 최순기 선교사와 함께 몽골에서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고 최순기 선교사가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하자 새생명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주변에 6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산다"는 제목으로 몽골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쓴 책을 한국어로 펴내기도 했다.

한편 신용 회장은 8월 7일(월)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토너먼트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골프 참여자와 광고후원, 물품으로 후원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대회 참가 및 광고, 후원문의는 총괄준비위원장 민김(213-700-7877)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여디디야교회 중독, 치유와 회복세미나

정신건강장애와 중독…우리의 커다란 고민

여디디야교회(담임 양영준 목사, 13820 Studebaker Rd. Norwalk)가 주최한 중독, 치유와 회복 세미나가 '치유를 위한 가족의 효과적인 역할'과 '중독,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치유와 회복'이란 주제로 LA나눔선교회(담임 한영호 목사), 북가주모닝스타와 회복선교센터 (대표 백남원 목사) 공동후원으로 지난 30일(금) 오후 7시, 1일(토) 오전 10시에 열렸다. 양영준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정신건강 장애와 중독의 문제는 우리의 커다란 고민이 되어 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독과 정신건강 사역자들이 기독교적 시각에서 중독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며 "특히 중독자의 가정,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치유와 회복 사역을 주제로 드라마와 주제 강의,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강사들의 강의와 가족 이야기를 다룬 '거울' 드라마를 통한 나눔을 가졌다. 세미나 패널은 △백남원 목사(모닝스타와 회복선교센터-북가주 도박 중독 치유 사역) △김현중 사관(새크라멘토 구세군 한인교회-중독사역) △한영호 목사(LA나눔선교회-미주마약알코올 중독 치유와 재활 사역) △양영준 목사(여디디야교회-가족 치유 및 목회상담)가 각각 참여했다. 또한 이민자의 가족드라마 '거울'에서는 김영란, 방향, 조창현, 하기희, 양하은 씨 등이 참여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다뤘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설계에 충실한..

〈1면에서 계속〉

그는 이런 이중 귀 기울임을 통해 신실하고 민감하게 말씀과 세상을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 두 지평을 연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세상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즉, 거짓된 적실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란 미명 아래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하나를 성취하면 안 된다.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세상에 대한 민감성을 조화시켜야 진정한 제자훈련이 가능하다. 제자 훈련은 세상 속에서 제자도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토트의 이중 귀 기울임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비평뿐 아니라 공감 행위와도 관계된다. 그는 세속 사회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며,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혼란과 절망에 공감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고,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는 곳을 긁어주며,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스토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293-94). 그가 이해한 이중 귀 기울임은 한편의 귀로는 성경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의 귀로는 세상의 습관과 문화적 어법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한숨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중 귀 기울임을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의 빛에 비추어 "지금"을 살아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제자훈련이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이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의 활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자훈련의 사회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식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단지 그리스도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다지는 일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일과도 관계된다.

스토트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기독교를 '외톨이' 종교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존 웨슬리의 말이 옳았다"라고 보고,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현대적이며 진보적이어야 함을 피력한다(스토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290).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에서는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진보적이어야 한다. 제자훈련은 개개인의 구원과 영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도 포함해야 한다. 제자 훈련은 개인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성장과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더 넓은 문화를 알아가며, 이 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도 성경뿐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비평과 공감도 요구된다.

제자훈련이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론적 차원에만 머무르고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는 일에 실패할 때, 이러한 제자훈련은 일상 안에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실현해 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언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요 3:16), 즉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언어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에 대한 한계"라고 말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도전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Ludwig Wittgenstein, Culture and Value, 3). 성경과 세상의 언어, 즉 이중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의 역동적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중 언어를 배운 사람은 통역가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직 성경의 언어만을 배우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즉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왜곡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몸에 대한 이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플라톤의 사상에 기초하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달라스 윌라드는 "종교에서 육체를 제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삶이다"라고 하였다(달라스 윌라드, 영성훈련, 42).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시를 통해 사람은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 때문에' 발전한다고 하였다(오스왈드 챔버스, 전도서, 116에서 인용).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창조적 선물이다.

제자훈련에서 이론과 실재의 균형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훈련은 삶의 실재를 위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닌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Wittgenstein, Culture and Value, 73). 이런 맥락에서 좋은 신학은 단순히 바른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미 있는 삶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자훈련도 삶의 실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교리와 성경 해석과 같은 이론적인 정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제자훈련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본질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실재에 관심을 돌려 단지 성경 텍스트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를 법할 수 있다. 이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적 실재를 이론으로 대치하려는 위험이 있다. 루이스는 본질적으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믿었다. 물론 복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음에 대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실재에 첨가되는 것일 뿐이다. 루이스는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순히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C. S. Lewis, C. S. Lewis: Essay Collection and Other Short Pieces, 21). 그에게 기독교 복음은 '큰 그림'을 보게 하는 눈이자 생명이었다. 여기서 큰 그림이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 너머와 그 아래의 숨겨져 있는 가치와 의미의 방식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티머시 제닝스가 강조한 인간과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을 아는 것과도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티머시 R. 제닝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46-49). 나아가 우리의 경험 세계가 아무리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독교 복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큰 그림, 즉 교회와 세상, 성경과 인간, 영혼과 몸, 신앙과 일상 등은 서로 의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재다. 성경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골 1:17)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제자훈련이란 이 큰 그림을 붙드는 것이고, 그 구조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by 최창국 (PhD, University of Birmingham, UK)

성경 전체를 어떻게 통합적...

〈3면에서 계속〉

급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성경신학은 교회와 학계에 엄청난 양을 제공하는 활기찬 학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성경 각 권 또는 성경 전체를 다루는 다양한 책과 여러 시리즈가 출간되어 있다. 그중에는 내가 편집하는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Series 도 있는데, 조만간 마태복음,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완결을 기다리고 있다. 40권으로 예정된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시리즈는 현재까지 몇 권만 인쇄되었다. 다른 유용한 시리즈로는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Essential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그리고 Short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등이 있다. 단언컨대 성경신학은 많을수록 더 즐거운, 실로 광할한 분야이다!

한 가지 우려는 "성경신학"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다양한 정의와 방법이다. 그렇기에 성경신학을 연구할 때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또한 연구 방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레고리와 나는 처음부터 정의와 방법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볼 때 일종의 혼합적 접근을 실천한다. 그들은 특정 신학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다가 성경적-신학적 내용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접근 방식에서 성경신학은 더 이상 순수 귀납적일 수 없다. 물론 순수한 귀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신학 체계의 전제를 막는 노력과 더불어 여전히 귀납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주의하길 바란다. 성경신학의 기치 아래 판매되는 모든 것이 반드시 동일한 정의와 방법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Biblical Theology 마지막 부분에서 그레고리와 나는 성경신학의 미래를 다뤘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논했다. 우리는 성경신학이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노력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책임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를 일으키며 동시에 신학적으로 정제된 성경신학을 만들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영역에서 더 많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성경신학의 명확한 정의와 조직신학과의 적절한 구분.

· 다른 학자의 발견에 대한 더 큰 협력 정신과 개방성, 반대로 해당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서 덜 경쟁적 관계.

· 마스터(만능) 열쇠 탐색을 포기하고 대신 다중 접근 방식 채택.

· 이번 책에서 모델링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성경 신학과 윤리 간의 더 큰 통합.

· 주요 주제, 성경의 줄거리, 정경 구조와 관련해서 성경 속 각 책이 추구하는 신학에 대한 적절한 관심.

· 예수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폭이 더 커지는 것. 구원이 아닌 창조로 성경신학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는, 진정한 글로벌 접근을 이루는 것.

· 성경신학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는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방법으로 새로운 세대의 설교자를 양성하고 또 전체 회중을 양육함으로써 학계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

by Phil Thompson·Andreas Koestenberger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한인교회, 토요학부모교실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2023 토요학부모교실을 9월9일-12월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임지은 지음' '문제아는 없고 문제부모만 있습니다-김양재 지음'의 교재를 중심으로 본교회 교육부 디렉터인 이현구 목사가 진행한다.

▲ 문의: 718-925-1329

뉴저지한인목사회, 둘로스 경배와 찬양 집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홍인석 목사)는 제11회 둘로스 경배와찬양 집회를 7월27일(목) 오후 8시에 뉴저지우리교회(담임 오종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01-638-1627

효신장로교회, 이슬람 선교 세미나

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7월22일(토) 오전 9시-11시 로뎀하우스 1층(RH101)에서 이슬람 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제이 홍 선교사(로드마스터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이슬람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762-5756

네이버플러스, 단비 찬양사역

네이버플러스는 Bergen County에 소재한 Nursing Home과 Hospital 그리고 Manhattan에서 찬양으로 뭇 영혼들을 깨우며 전도하는 남녀혼성 합창단으로써 함께 섬길 분을 모집한다. 대상은 목소리나 악기로 전도하길 원하실 분이며, 시간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9:30~정오 12:00)이다.

▲ 문의: 201-461-0909

영생장로교회, 여름 말씀 집회 [PA]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7월21일(목)부터 7월23일(주일)까지 여름 말씀 집회를 가진다. 정승환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집회는 △21일(금) 오후 8시 '야곱의 사다리 (창 28:10-22)' △22일(토) 오전 6시 '그를 위하여 (골1:14-20)' 오후 8시 'For the Next Generation (출 1:1-22, 2:1-4)' △23일 주일 '그림자 (막 5:21-35)' '여호와의 산 (창 22:1-14)' 으로 진행된다.

▲ 문의: 215-542-0288

Prassion 7월 연합기도회 [MD]

프레션 연합기도회가 7월24일(월) 오후 7시30분에 갈보리복음교회에서 열린다. 말씀은 익투스교회 담임 정성민 목사가 전한다. 주소는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이다.

▲ 문의: 장수철 목사 (sucheorjang@bethelchurch.org)

2023 각 교회별 단기선교 현황

떠나는 선교사 '복음의 씨앗',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씨앗'

2023년 여름을 지내며 각 교회마다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나는 단기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가 되어 선교에 올인하게 된다. 교회별 2023년 단기선교 일정은 다음과 같다.

〈홍현숙 기자〉

교회	선교지	일정
뉴욕센트럴교회	멕시코	8/2(수)-8/10(목)
뉴저지초대교회	루이빌 난미선교	7/22(토)-7/29(토)
베다니교회	파나마	8/5(토)-8/12(토)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도미니카 공화국	7/23(주)-8/5(토)
보스톤장로교회	도미니카 공화국	7/15(토)-7/22(토)
영생장로교회	YSY필라도시	7/22(토)-7/28(금)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인도차이나	7/10(월)-10/5(목)
	크로아티아	7/14(금)-7/25(화)
	알칸사스	7/17(월)-7/21(금)
	볼티모어	7/30(주), 8/27(주)
	튀르기예	7/29(토)-8/6(주)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과테말라	7/30(주)-8/5(토)
퀸즈장로교회	카자흐스탄	7/28(금)-8/6(주)
	캄보디아	7/27(목)-8/7(월)
	케냐	8/20(주)-8/29(화)
	킹덤미션(중국,파키스탄)	8/3(목)-8/5(토)
퀸즈한인교회	한국	7/17(월)-8/4(금)
필그림선교교회	영국웨일즈	7/22(토)-7/29(토)
	오하이오 데이든	7/15(토)-7/22(토)

뉴욕교협, 뉴욕선교 및 할렐루야 대회를 앞두고 홍보하고 있다

뉴욕교협, 뉴욕선교 및 할렐루야 대회 홍보 열전

뉴욕선교대회(7.20-22) • 할렐루야대회(7.28-30)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2023년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위해 7월16일 오후 퀸즈 플러싱 한인마트 앞에서 교협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이 홍보에 나섰다.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은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강조하는 노란 완장을 어깨에 두르고 마트에 오고 가는 분들에게 준비한 홍보물을 전해주며 많이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뉴욕교협은 이에 앞서 7월초에는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이 앞장서 뉴욕 주요지역 및 교회에 대회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붙인 바 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주일예배를 인도하고 피곤한 몸임에도 대회준비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박태규 목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과 은혜의 선물을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며 "모든 분들이 참석하여 연합의 기쁨을 맛보자"고 전했다.

2023년 뉴욕선교대회는 '복음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류응렬목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7월20일(목)-22일(토)까지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또한 2023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7월28일(금)-30일(주일)까지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 또한 같은 시간에 "Jesus is Calling the Next Generation"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지윤 목사(어린양개혁교회 2세 목사)를 강사로 할렐루야 복음화 어린이 집회가 개최된다.

〈정리 홍현숙 기자〉

뉴욕가정상담소 호돌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뉴욕가정상담소, 호돌이 프로그램 여름학기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는 뉴욕시 공립학교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 (DYCD) 간의 파트너십을 갖고 '호돌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여름학기를 7월 3일 개최했다. 본 프로그램은 약 15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시행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현재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업 지원, 사회적 정서적 학습 및 심화 활동 (예술, 스포츠, 놀이 등등)을 하고 있으며 현장 학습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글짓기, 수학, 과학을 비롯한 과목과 살아가면서 중요한 협동심, 독립심, 통솔력 등을 기르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줄 스포츠츠 시간도 준비 돼,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안전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간은 주중 오전 8시-오후 6시까지이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뉴욕,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어린이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뿐 아니라 법률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24시간 핫라인: 718-460-3800 | https://www.kafsc.org/ | www.facebook.com/kafsc

〈기사제공 - 뉴욕가정상담소〉

뉴욕목사회, 랭커스터 뮤지컬 모세관람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7월18일(화) 회원 목사들과 사모 등 50여명이 펜실바니아 랭커스터를 방문하고 밀레니엄 극장에서 성경 뮤지컬 '모세'를 관람했다.

〈정리 홍현숙 기자〉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및 이사 상견례 후 사진 촬영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기도회 및 이사 상견례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7월 15일(토) 오후 5시에 베이사이드에 소재한 삼원각에서 기도회 및 이사 상견례의 시간을 가졌고 김유봉 장로를 이사장으로 이명석 안수집사를 부이사장으로 추대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 수석부회장 박용기 장로의 기도,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의 인사와 임원 및 이사 소개,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정훈 간사의 기타 연주와 찬양, 부회장 최은종 목사가 인도한 통성 기도, 전병삼 장로(뉴욕장로성가단장)의 마침 기도, 주기도문, 김유봉 장로의 식사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국가조찬 기도회는 기도하는 단체이다. 그동안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기도의 역군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회장 최은종 목사는 △조국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정치이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회개 각성을 위해, △이 땅에서 한인의 위상과 긍지와 주인의식을 가지며 다음 세대들이 Korean American의 뿌리를 깊이 내려 타인종들의 머리가 되게 해 달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그 외에 △이승만 박사 가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 박사 동상 건립을 위한 8월 행사를 위하여 △김영덕 박사의 부인을 위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다.

〈정리 홍현숙 기자〉

뉴욕목사회, 설교세미나 개최

권호 목사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핵심 기법"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합신동문회와 퀸즈한인교회가 후원하는 설교세미나를 8월14일 (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퀸즈한인교회에서 개최한다.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이며,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인 권호 목사를 강사로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핵심 기법"(Essential Skills for Text-Driven Preach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이다.

권호 목사는 총신대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골든 콘웰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 학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방송사역으로 CBS 올포원, 새롭게 하소서, 조이포유 등에서 활동했다. 권호 목사는 많은 저서를 출판했으며 한국기독교출판협회에서 2018년 '최우수서적'상, 2021년에는 '올해의 저자'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 〈보이는 내러티브 설교법〉,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새강해설교〉, 〈비상 -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올라라〉, 〈바울이 세상에게〉, 〈생명의삶 Plus 및 목회와 신학〉 등이 있다.

등록비는 30불로 점심과 저자의 책(본문이 살아있는 설교)을 제공한다. 등록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한다.

등록과 문의는 정관호 목사(917-750-8174)나 이문범 목사(347-256-1477)에게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목사 7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 주최 : 신문방송 TV
3(월) 오후	한얼산기도원 (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 한미연합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4(화) 오후	서울 삼각산 선지기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주최 : 한국부흥사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5(수) 저녁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 총연합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상임총재 한영훈 목사, 대표대회장 김우경 목사)
6(목)~7(금)	천안 위대한목회자 영성원 (원장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10(월) 오후	세계 기독여성지도자 선교협의회 (대표고문 장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11(화) 오전	지.선.협. 국가구국기도회, 선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2(수) 오후	서울 창동 주성령교회 (전숙희 목사) 010-8775-7479
17(월)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 (최옥순 목사) 010-2213-4448
18(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9(수) 오후	송추 반석교회 (고권능 목사) 010-2391-3001
19(수) 저녁	파주 엘리야 기도원 (강입분 원장) 주관 : 한국교회연합 부흥사회 (총재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20(금) 오후	충주 금식기도원 (원장 고충만 목사) 010-3709-4968
24(월)~26(수)	Mission Association MT
27(목) 오전 · 후	서울 신학교 (학장 김춘환 목사) 주최 :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화) 010-7567-8291
28(금)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31(월)	아산 새벽별교회. 미라클 국제선교회 (대표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

제2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대각성 새벽기도회 개최

제2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대각성 새벽기도회가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대하 7:14)' 라는 주제로 7월31일(월)부터 8월23일(수)까지 갈보리선교교회(담이 심상은 목사)에서 OC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여성목사회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교계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개될 기회가 많지 않았던 3050 차세대 목회자를 폭넓게 찾아 다음세대의 리더로 한걸음 나설 기회를 함께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이 차세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섬김과 협력, 영적 부흥과 존중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초석이 되고자 마련된다. 심상은 목사는 "작년 팬데믹이 마쳐지는 시점에서 OC 지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돌파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21일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 목사는 "

제2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대각성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특별히 기도회 강사를 작은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사역하는 젊은 21명의 목회자들을 선정했으며 그분들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쳤다"며 "올해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뜨겁게 외쳐야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한다. 캘리포니아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이번 기도회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젊은 목사들 일어나 새벽마다 부르짖어 영적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생수 장로(전 OC장로협회장, 남가주동신교회)는 "작년에 21일간 대표기도를 장로협의회에서 담당했다. 미국과 전 세계를 복음화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회가 열렸으면 한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도회 강사는 이원석 목사(하사랑교회), 박성원 목사(호산나평화교회), 이준영 목사(원더풀커뮤니티교회), 왕상윤 목사(라이트하우스얼바인교회), 표희곤 목사(은혜샘교회), 박현동 목사(보이스교회), 손태정 목사(주성선교교회), 류광환 목사(커넥션교회), 박용수 목사(굿셰퍼드교회), 곽재필 목사(남가주지구촌교회), 김상현 목사(남가주주안에교회), 오충성 목사(하늘 기쁨의교회), 윤희준 목사(복된교회), 신용석 목사(로고스라이프교회), 김영일 목사(더섬기는교회), 최국현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조진석 목사(주의길교회), 차권희 목사(놀웍장로교회), 전상천 목사(내일을드리는교회), 정우영 목사(말씀대로교회), 김성식 목사(백송교회)이다.

한편 24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목회자세미나를 갖게 된다. 목회자세미나 참석인원은 3050목회자 및 부교역자 선착순 100명이며 강사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이다.

〈박준호 기자〉

올림픽장로교회 성전이전감사예배에서 이수호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올림픽장로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하나님 뜻과 놀라운 계획이 날마다 이뤄지는 교회되길"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이수호 목사) 성전이전 감사예배가 16일(주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수호 목사는 "저희 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며 "교회 이전할 때 새로운 예배처소를 LA를 벗어날지를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곳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인 타운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교회가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엘로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수호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문상면 목사(CRC 한미노회 서기, 생명샘교회)가 기도했으며 샬롬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권혁빈 목사(씨드교회)가 '거룩한 곳에 서다(수 5:13-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혁빈 목사는 "올림픽장로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입당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며 "새롭게 마련된 이 터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를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재하고 소통하고 예배하는 편안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님께서 올림픽장로교회를 위해 계획 하신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과 말씀과 선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가 축사했으며 이수호 목사 인도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대면 목사와 문혜원 권사가 특송했다. 그리고 새 예배당 이전의 전과정에 수고를 한 구재영 장로와 이헌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예배는 정장수 원로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4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14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성황리에 열려

백은실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대표 퇴임식도 겸해

제14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가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한홍 목사(새로운교회)가 주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예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는 후안 시에라 글로벌커피브레이크 프로그램 메니저 인도로 백은실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대표의 퇴임식이 있었다. 백은실 대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커피브레이크 사역에 함께해주셨다"며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할 수 있었던 보석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태욱 집사(커피브레이크US 한인대표)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집회는 백규식 2대 한인커피브레이크 공동대표가 대표기도 했으며 '에베소교회: 첫 사랑을 회복하라(계 2:1-7)라는 제목으로 한홍 목사(새로운교회)가 설교했다. 한홍 목사는 "에베소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의 여파때문이다. 은혜의 샘물이 중단되고 영적인 공급원이 차단되어서이고 풍요가 가져다 준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라며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기도생활이 차가워진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된다. △전도의 의욕을 잃게 된다. △일상의 삶에서 생각을 하나님께 머물지 않게 된다. △사역의 기쁨과 열정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든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귀찮게 여겨진다.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 한다" 등을 꼽았다. 그는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케어 하기 바빠서 주님과 교재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주님과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윤원환 목사(피닉스장로교회)가 '현재와 종말 중간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계 22:10-15)'라는 제목으로 첫날 개회예배 말씀을 전했으며 한홍 목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계 3:14-22)'라는 제목으로 폐회예배 말씀을, 목요일 저녁 예배는 한홍 목사가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계 1:1-20)', 금요일 아침예배는 최현규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빌 3:12-14)', 토요일 아침예배는 백승찬 목사(코로나감사한인교회)가 '그를 보리라!(계 1:7)'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김민순 목사(갈릴리한안장로교회)가 '요한계시록 배경연구'라는 제목으로 전체 강의했다. 또한 백은실 권사(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글로벌 커피브레이크 리더십 강사), 한태욱 집사(커피브레이크US 한인대표/커피브레이크 워크숍 인도자/비즈니스&라이프 코치), 조윤희 권사(커피브레이크미니스트리 대표/커피브레이크 워크숍 인도자), 계순정/김혜란. 정혜란 (커피브레이크 워크숍 인도자)들 강의가 있었고 토의와 실습의 시간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소천

남가주 교계 원로이며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이자 아메리칸 신학교 학장이셨던 김혜성 목사가 지난 12일(수) 0시 30분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 김혜성 목사는 독립운동가 김윤찬 목사의 자제로 경희대학교 영문과 졸업, 워싱턴대학 졸업, 훼이스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교목, 워싱턴주 주지사 고문, 푸젯 사운드 한인회 회장, 타코마와 밴쿠버 한인교회 개척 및 시무했었으며, 이북도민연합회 회장, 재향군인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혜성 목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가족은 남정숙 사모 사이에 7남매가 있다. 장례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23 LACS 정기연주회

2023 LACS(단장 문혜원, Los Angeles Christian Singers) 정기연주회가 '클래식 ! 영화안에 흐르다~ !'라는 주제로 22일(토) 6시 세계등대교회(1479 E. Brdadway, Glendale)에서 열린다.

▲ 문의: (213)453-8690, (213)392-3133

나침반교회 창립25주년 송태근 목사 초청 회복사경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창립25주년 송태근 목사 초청 회복사경회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1일(금) 오후 7시30분, 22일(토) 오전 6시30분, 오후 6시30분, 23일(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이다.

▲ 문의: (714)403-2193

권오균 목사 출판기념회

권오균 목사(글렌데일 성산장로교회 담임) 〈진정한 자아〉 출판기념회가 23일(주일) 오후 5시 CAFE NEMO(103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이날 참석하는 자들은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책을 무료로 받게 된다.

▲문의: (626)202-5532

엘피스가정사역원 제3차 힐링캠프

엘피스가정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은 오는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목회자 아내를 대상으로하는 힐링 캠프 '나만의 마음근력 키우기'를 시에라 마드레에 있는 메이터 돌로로사 수양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0달러.

▲ 예약 및 문의: (213)700-9928(박운송 목사)

나성영락교회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22일(토) 오후 7시30분 본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열린다.

▲ 문의: (323)227-1400

선한목자교회 48주년 교회창립주일 예배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48주년 교회창립주일 예배가 23일(주일) 1-4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이날 예배시간에는 성찬식도 함께한다.

▲ 문의: (909)591-6500

달라스빛내리교회 이열치열 부흥회

달라스빛내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 이열치열 부흥회가 22일(토)과 29일(토) 오전 6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22일 정찬수 목사, 29일 정햇살 목사(베다니교회)

▲ 문의: (972)238-1127

탈북민 2세 초청 '스룹바벨 통일비전캠프' 열린다

탈북민 2세들을 초청하여 이들을 복음통일의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한 '스룹바벨 통일 비전캠프'가 오는 7월24일(월) - 8월3일(목)까지 나성산기도원에서 GMCC 선교회(회장 현병훈 장로) 주최로 열린다. 이번 스룹바벨 통일 비전캠프를 위해 GMCC선교회는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은 △체크 발행시 GMCC로 발행(메모란엔 '통일비전캠프'), △체크 보내실 곳: 27 Frances Cir. Buena Park, CA 90621, △온라인으로 보내 실 때는 Zelle: 213-352-6253, Venmo: @songjx050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213)352-6253

캐서린 조 싱글앨범 '향유처럼' 발매

캐서린 조(Catheryn Jo) 찬양 사역자의 세 번째 한국어 싱글앨범, 〈향유처럼〉이 지난 6월 발매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16년 위로밴드 보컬로 한국 CCM 앨범을 작업 한 이후, 꾸준히 한국어와 영어 앨범을 내 놓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

〈향유처럼〉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erfume A Tus Pies라는 스패니쉬 찬양이다. 캐서린 조는 이 곡을 발매하게 된 계기를 "과테말라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박우현 전도사가 처음 이 곡을 제게 들려줬을 때,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로 번안해서 불러보라는 제안에 흔쾌히 승낙했고, 몇 달에 걸쳐 마리아의 심정을 묵상하며 원곡의 의미에 제 고백을 담아 가사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으며 마리아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없을 만큼 예수님만 보였을 것"이라며 "흐르는 향유와 함께, 감사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을까? 죄를 사해주신 은혜는 값비싼 향유로도 대신할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전히 연약한 자신이지만, 이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의 다짐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향유처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길,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향유를 기쁨으로 부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매된 앨범은 모든 스트리밍 앱 뿐 아니라, 캐서린 조의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CatherynJoMusic에서 들을 수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오송 참사' 인근 교인 안전 확인 비상

중남부 물폭탄… 교회 등 피해 상황

역대급 폭우'로 경북과 충청 등 중남부 지역에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역 교회들도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인근 교회들은 성도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지역 교회들은 이재민을 교회로 피신시키고 식수를 공급하는 등 구호 사역에 동참했다.

주일인 16일 경북 예천제일교회(김운수 목사) 주일 예배에 출석한 성도 수는 평소의 절반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길이 끊겨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였다. 박재덕 교회 부목사는 "성도 몇 명은 집이 떠내려가 집터만 남았고, 일터인 과수원이 잠기거나 농기계와 트럭이 물에 떠내려간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성도들은 이날 예배에서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을 위해 기도하고 피해 현장을 찾아가 복구를 도왔다.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에서 1.5㎞ 떨어진 호계교회(한명희 목사)도 수마를 피하지 못했다. 집중호우로 교회 건물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과 교육관, 창고가 물에 잠겼다. 성도들의 피해도 컸다. 교인 대다수가 고령이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와 집이 모두 침수된 경우가 많았다. 한명희 목사는 "지대가 낮은 동네라서 8년 전에도 호우로 물난리가 났는데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너무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하차도 인근 A교회는 이른 아침부터 교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B부목사는 "성도들의 피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오송지하차도를 지나다 피해를 당한 성도가 없는지 교구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전화 심방을 했다"고 전했다.

"성도들 기도 · 재정 후원 덕에 여름 사역 활기"

선교지 물품 판매, 후원 음악회 등으로 '보내는 사역' 도 활발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에 정겨운 장마당이 열렸다. 수익금을 단기선교 대상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이보다 더 비쌀 수 없샵'이다. 16일 열린 행사에는 선교지인 강원도 횡성의 특산품인 한우 오미자청과 수제로 만든 된장·고추장 등이 판매 품목으로 마련됐다. 횡성 지역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들어 질 높고 믿을 만한 상품이다.

이번 장마당은 후원금 마련은 물론 선교지 교회를 돕고 선교 현장에 가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간접적 선교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됐다. 횡성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최은혜(43) 집사는 " 횡성에 함께 가지 않는 성도들도 판매 접수 포장 등의 역할을 맡아서 모두 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선교를 격려해주고 가는 어르신도 있는 등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다"고 밝혔다.

여름 단기선교와 수련회 등을 앞두고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와 재정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박현일 신촌성결교회 부목사는 "교회가 단기선교를 가는 횡성 지역 중에 아직 폭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교회는 없다"면서 "하지만 교회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공서 한인교회 청소년들이 뭉쳤다

다음 세대 위한 연합수련회 개최

아프리카 최남단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현지 한인교회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 케이프타운에 있는 4개 한인교회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케이프타운의 한 캠핑 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 음푸말랑가 등 남아공 전역에 있는 다음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역과 단절된 교제에 갈증을 느낀 이들을 위해 교회가 연합한 것이다.

수련회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이란 주제로 열렸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개별 특강도 진행됐다. '거룩'을 주제로 다음 세대가 관심을 갖는 일, 연애, 결혼, 성, 술, 담배 등에 관한 사전 질문을 받고 선교사와 목사,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질문에 답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넘게 날아온 청소년도 있었다.

연합수련회를 기획한 서반석 목사(케이프타운 한인교회)는 17일 "한국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라며 "이들이 아프리카와 세계를 이을 복음의 중간 통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는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한인 다음세대가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길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닷새 만에 1억명' 스레드…미디어 선교 창구로 떠오르나

텍스트 중심 SNS 스레드, 누구나 성경 말씀 쉽게 접할 수 있어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명을 넘긴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를 활용해 미디어 선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스레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Meta)가 기획한 SNS 플랫폼으로 '트위터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레드는 텍스트 중심 SNS로 한 게시물당 500자까지 지원된다.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사진 또는 최대 5분 길이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의 게시물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 '물음에 답하다' 운영자인 조재욱 목사는 16일 스레드를 통해 '크리스천의 스레드 활용법'을 제안했다. 조 목사는 "스레드는 텍스트 중심이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고 누구나 자신의 글을 읽을 수 있다"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스레드를 통해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도움을 얻었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는 것이 크리스천 스레드 활용법"이라고 조언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기독 문화를 전하는 온라인사역 단체 '교회친구다모여'도 발 빠르게 스레드 사역에 합류했다. 팔로워 4500여명을 모은 이 단체는 지난 11일 게시글을 통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중독됐다가 신앙을 통해 극복한 청년 사례를 담았다. 팔로워 2800여명을 둔 크리스천 자기계발 커뮤니티 채널 '글로리파이어'는 짧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성경 메시지를 전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나 상황은 없습니다" "가끔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주상락 미국 바키대학원대 선교학 교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노출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음 세대 선교 전략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뚝뚝!! 여러분~조혜련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 공백 기간 2편, 신약전권 다룰 예정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와 ' 이스라엘로 오십쇼'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준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이번에는 신약에 도전한다. 지난 17일 시작된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는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 공백 기간 2편을 2주 동안 전한 뒤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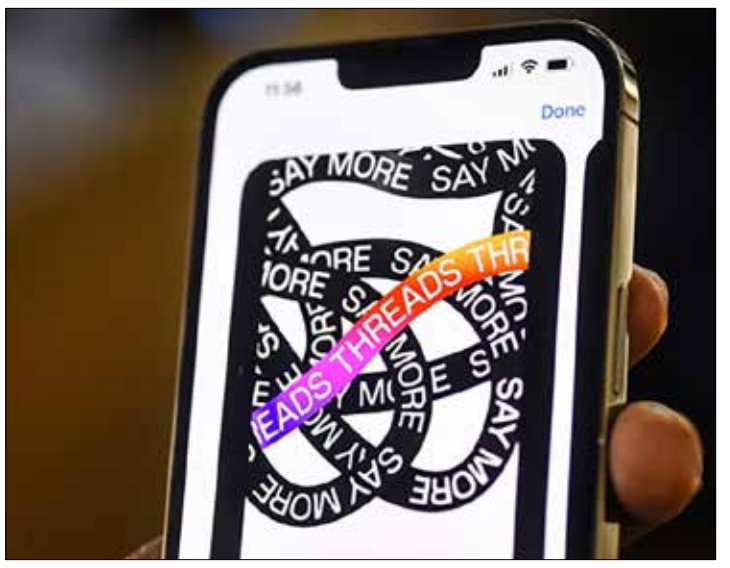
오는 24일 공개되는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프리뷰-중간사' 편은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됐는지, 헤롯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누구인지 등 중간사 400년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개그맨 김기리가 게스트로 참여해 조혜련 집사와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더욱 풍성한 재미를 더한다.

오는 31일부터 매주 방송되는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본편은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순서대로 강의할 예정이다.

'오십쇼' 시리즈는 2년 전 50세가 된 조혜련 집사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아들 우주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경 강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후 조혜련 집사의 어머니와 딸에게 성경을 쉽게 가르치는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개그우먼 박미선 권사와 함께 떠난 성지 순례 프로그램 '이스라엘로 오십쇼'가 인기리에 연속 방영됐다.

유튜브에서는 "어려운 성경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온다" " 새신자들에게 보내주니 재미있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다" "조혜련 집사의 강의를 들으며 통독을 시작했다' 등 성도들의 간증과 호응이 쏟아졌다. 아들 우주에게 강의한 '신·구약 성경 요약 30분' 편은 유튜브 조회수 210만회를 넘으며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는 유튜브 CGN 채널과 퐁당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와 퐁당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된다. TV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방영된다.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 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찬 양 예배: 오후 8:00
새벽 기 도회: 화-토 오전 5:30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선교의 창 (21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인테그리티(INTEGRITY)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결코 단독자로 살 수 없다. 인간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누가 저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는 자질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 그 핵심은 리더십과 사람됨이다. 세상의 지도자 기준은 인격보다 능력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아무리 지식과 수완(手腕)이 뛰어나도 지도자로서 품성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일쑤다. 서구사회에서 "Man of Integrity"란 평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이다. 그 인테그리티는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을수록 기대치가 높다. 오늘날 목회자와 선교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은 리더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른 그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일평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 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정상이 아닌가? 목사, 선교사는 영적 지도자이다. 군중들은 일(TO DO)보다 일을 진행하는 지도자(TO BE)를 더 예리하게 쳐다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화상(自畵像)을 그려보며 창조의 원형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테그리티이다.

1.인테그리티(Integrity)의 의미

Integrity의 어원(語源)은 라틴어 형용사 "Integer"이다. 그 의미는 "온전한, 완전한"이란 뜻이다. 일반사전에서는 Integrity를 정직(honesty), 신실(faithfulness), 청렴(purity), 고결(high nobleness), 온전(perfect unity)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나 어느 단어도 완전히 그 뜻을 담지 못한다. 인테그리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순수성 측면을 강조한다. 즉, "완전한 상태, 흠 없음, 본래의 모습"으로 뜻풀이를 한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이물질 또는 이질적인 그 무엇에 대하여 본래의 온전함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Integrity는 정직함(honesty)에서 시작해서 불의에 행동으로 대항하는 용기와 희생정신(sacrifice)이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겸양 등 우리가 관념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덕목을 아우른다.

2. 성경이 말하는 INTEGRITY

성경적 관점에서 Integrity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거룩(Holiness)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이며 그 백성에게도 요구된다(살전 4:3).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구별이지만 Integrity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시편 24:4은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의 표본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 하는 자로다." 성경 속에서 Man of Integrity의 가장 대표적 인물은 아마도 욥이다. 그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다. 사탄이 그의 흠을 잡기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온갖 시험을 하였다. 허나 욥은 그를 참소하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Integrity를 끝까지 지켰다. 그러나 욥기서 후반에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결핍함을 보였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 의인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의인은 아니었다. "A Man of Integrity"로서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조차도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라고 표현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인테그리티의 모델이시다.

3. Integrity 로 문제가 된 지도자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밖에서 인테그리티 건으로 불명예를 안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공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도덕성에서 흠집이 나면 그 오욕(汚辱)을 지울 수가 없다. 여기 한 사례가 있다. 닉슨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다. 공화당 출신인 그는 재선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비밀공작단이 워터게이트(Watergate)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그는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되었다. 곧이어 그는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닉슨은 미 역사상 임기 중 사퇴한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떠한가? 저마다 크고 작은 공로가 있었으나 Integrity 문제로 모두가 걸렸다. 특히 기독교 장로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우리 시야를 안으로 돌려 기독교계를 바라보자. 평생을 헌신하며 고생 가운데 큰 업적을 세웠으나 말년에 매듭을 잘못 지음으로 인해 불행하게 되신 분들이 어찌 한 둘이랴! 모두가 인테그리티로 귀결된다. 선교사 사회도 문제가 작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인즉 큰 차이가 없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이를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테그리티에 심각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4. Integrity 로 나아가는 길

인류의 교사요, 성자인 어거스틴(Augustine)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으로 세계적 불후의 고전인 고백론(Confession)을 썼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가 주로 인간을 병들게 되는 원인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죄 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주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Man of Integrity"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야 한다(갈 2:20). 죄인 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 더러운 컵에 생수를 채우려면 먼저 컵을 깨끗이 씻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 늘 씻어야 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일이다. 둘째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야 한다(요 1:4-5).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속사람이 자랄 수 없다. 힘도 쓸 수가 없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영성이 실천적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셋째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롬 6:13). 어두움과 빛의 중간 지대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신다. 사도 바울이 산 증인이다. 그의 거친 성품이 어떻게 성자의 모습으로 변했는가? 그가 주님을 만난 후 남은 인생을 온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맺음 말

성경에 아브람, 다윗, 베드로 등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인테그리티(Integrity)"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다. 세상을 다스렸던 군왕들과 제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인테그리티의 오점은 그 위대한 치적으로 상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못 자국처럼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유념하라.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바로 지도자 자신이다. 교회나 세상에서도 일의 실패는 용납이 된다. 허나 그 사람 자체 즉, 인테그리티 실패는 용납이 안 된다. 이는 본인에게 치명적이며 사회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SNS가 발달한 지금의 세상은 편하면서도 무섭다. 숨을 곳이 없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한번 도덕적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안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MAN OF ITEGRITY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 그 첩경은 자아가 늘 십자가 아래서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INTEGRITY란 의로움, 정직, 성실이란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일 실패는 용납이 될 수도 있으나 인간됨의 실패는 용납이 안 된다.
지도자는 사역 못지않게 자기 인테그리티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6)

조지 맥도널드의 판타스테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루이스는 17세 때 목사요 작가였던 조지 맥도널드(George MacDonald)의 환상 소설 "판타스테스(Phantastes)"를 읽었습니다. 이 책이 루이스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판타스테스를 읽고 루이스는 상상력의 세례(Baptism of Imagination)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루이스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 덕분에 나는 회심할 수 있었고 내 죽어 있던 상상 세계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의 판타스테스는 고대 설화의 원형에 더 가깝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든 루이스 캐롤등 초기 판타지 소설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판타스테스를 1858년도에 출간했습니다. 저자 조지 맥도널드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 이번 글에서 판타스테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판타스테스에는 주인공이 아노도스(Anodos)입니다. 아노도스는 헬라어로 '길이없다(Pathless)'는 뜻입니다. 아노도스가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의아해하며 깨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노도스는 21살의 생일에 아버지로부터 신비한 유산들을 받았습니다. 그 유산은 할머니 요정이었는데 할머니 요정은 아노도스에게 요정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노도스가 그 모녀 요정의 집을 떠나 숲을 거닐면서 온 세상에 요정의 영이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숲속에 꽃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는데 그 이유도 요정의 기운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 나무와 나비와 새도 등등 모든 생물에 요정의 기운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노도스는 물푸레나무 악령을 만났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너도밤나무 요정의 도움으로 도망쳤습니다. 너도밤나무 요정은 현상 세계의 여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노도스는 계속해서 여러 요정을 만났습니다. 악한 요정을 만날 때마다 선한 요정이 나타나 아노도스를 구해주었습니다.

아노도스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노도스는 이 여인을 만나면서 아름다움과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노도스는 숲에서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궁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궁전에는 아노도스의 명패가 붙어 있는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기도 합니다. 그는 환상적인 숲속의 삶을 어떻게 인간 세상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노도스는 이어서 더러운 땅에 도달합니다. 이 땅을 벗어나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터널로 도망치는데 터널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터널에서 도망칠 창문을 발견해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막 벗어났는데 큰 폭풍이 있습니다. 폭풍속에 배를 타고 섬으로 도망쳐서 섬에서 한 노파의 집에 머뭅니다.

그 노파의 집에는 작은 방들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고 새 방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방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아노도스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벗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이 방들의 문을 열고 새 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비한 요정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노도스는 이 노파요정의 집을 떠나면서 왕족의 후손이었던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반색하며 아노도스를 반겼습니다. 왕족의 후손이었던 그들은 세 거인들이 거주하는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거인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마을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세 거인을 몰아내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이 찾아와 합류하면 세 거인을 몰아낼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노도스와 두 형제가 세 거인을 공격했습니다. 싸움이 격렬해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고, 왕족의 후손인 두 형제는 죽었습니다. 아노도스도가 겨우 살아있는 헐떡거리는 거인들을 죽였습니다. 세 거인이 모두 죽자 주변의 도시와 마을이 해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노도스가 그 지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노도스는 죽은 두 형제의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려 찾아 나섰다가 붙잡혀 갇혔습니다. 그런데 아노도스는 자신의 그림자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아노도스는 숲 생활에서 자신의 중요한 방해꾼이 자기 그림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늘 자신의 그림자가 자기를 조롱하고 그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노도스가 악한 요정과 싸웁니다. 아노도스는 이 싸움에서 죽습니다. 아노도스는 자신이 악한 영과 싸웠다는 만족감으로 악한 요정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아노도스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막 깨어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여동생들이 그가 21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평생을 요정의 나라에서 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노도스는 요정의 나라에서 배운 기사도, 용기, 그리고 도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스코틀랜드의 환상작가 조지 맥도널드의 판타스테스의 줄거리입니다. C. S. 루이스는 이 소설을 읽고 영적인 여행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루이스는 훗날 이 판타스테스를 통해 '상상의 회심'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책은 루이스가 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받은 사명 막 1:38 찬 213장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함"(눅 4:4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짧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 오늘의 요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전도"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로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막 2:17 찬 252장

마가복음 2장에는 특별한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 병자(마 9:2)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세리 레위(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죄"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 간에 짓는 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원죄는 인간 사이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수 참된 안식 요 5:17 찬 412장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이후 2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을 힘겹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생명 누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늘 발견해 내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목 업그레이드 된 율법 마 5:21-22 찬 561장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 후 2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 후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베푸신 설교 중 한 장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마 5:1)에서 시작하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마 8:1)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기록하면서 산상수훈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내용은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제어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시간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사용합시다.

금 듣고 행하라 눅 6:47-49 찬 379장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믿음이 생각과 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믿음과 신앙이 너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복음과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복음'이 내 삶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기대하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삶의 실제로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토 접근을 넘어 접촉으로 마 8:2-3 찬 534장

산상수훈 후,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동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만일 나병환자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거나,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나병환자를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의 부정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나병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함과 접촉되었을 때, 예수님의 정함이 나병환자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병환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부정함을 체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병환자가 외쳤던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외치며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교육 (30)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조직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계획은 실행되어야 하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그들의 활동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의 두번째 단계입니다.

계획에 따라 조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과 교육관을 세우는 일은 전혀 다른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원활한 조직을 위해서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조직을 위해서 교회의 목적과 계획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용, 시기, 담당자, 팔로우스루, 기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 무엇보다 먼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절차를 회중에게 제시할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설교, 그룹모임, 방문 등등. 전체적인 계획에는 목표와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직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다음으로, 계획을 언제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실행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지체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행 시기에 관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새 프로젝트가 당장 시작되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것인가? 실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가?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실행을 위한 시기가 정해지면 프로젝트에 연관된 활동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담당자: 계획을 책임지고 추진할 담당자를 일찍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담당자가 무능하거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있어 리더를 세우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팔로우스루: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방법과 임무를 재배정하는 방법 등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후속 처리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진행일정, 사역팀의 구성원과 임무, 훈련교재 등등. 기록에는 활동분석, 전달사항, 또는 의사소통에 사용된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그와 같은 자료들은 제목에 따라 분류하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실행과정을 평가하는데 필요하고, 실행 도중 새로운 사람을 훈련해야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자원과 그들의 활동을 조직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예는 주일학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일학교는 교회성장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주일학교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을 포함하며, 주일학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을 향한 복음적 접근: 주일학교의 임무 중 하나는 사람들을 성경공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이웃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추수: 지역사회에 성경공부의 기회를 알림으로써 불신자들이 주일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추수를 위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교리적인 일관성: 주일학교에서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공부합니다. 따라서 회중이 교리 가운데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신자들을 위한 연수훈련: 주일학교는 나아감, 가르침, 전도, 섬김의 프로그램으로 조직됩니다. 이를 위해 봉사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교회성장: 주일학교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교회의 영향: 주일학교는 참석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아가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장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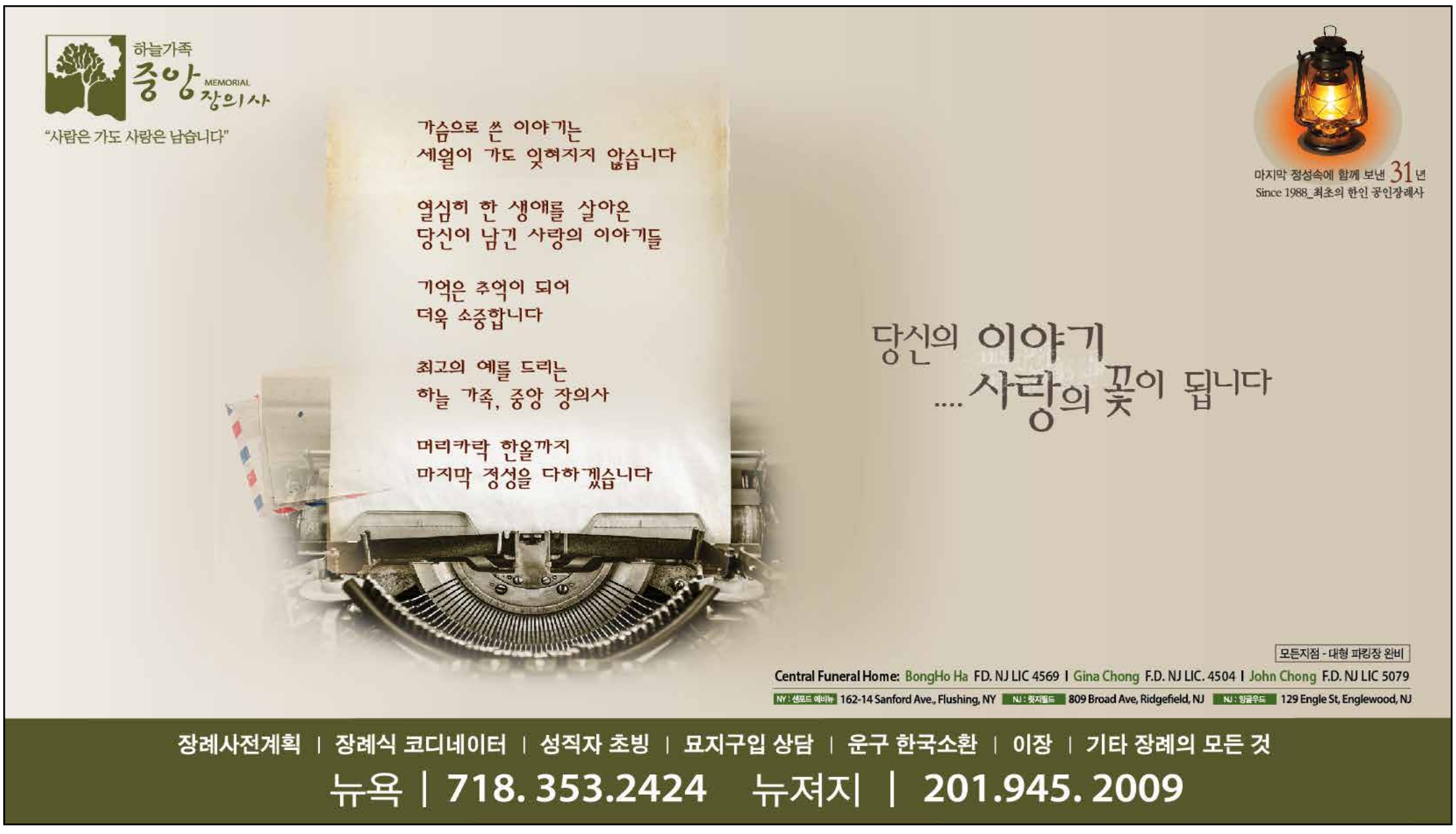
세계선교에 동참: 주일학교는 학생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조직하는 일에 있어 비근한 예가 되는 주일학교는 성장의 목표를 향해 조직됩니다. 교회성장이 중요한 것은, 성장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성경공부의 결과이고, 열매를 맺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통해 교회는 더욱 다양한 사역을 펼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장에 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2:41-42).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6:7).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11:21).

목표를 향해 세워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jonk@dbu.edu



선교 편지

케냐

케냐를 위해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매순간 저희는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케냐는 지금 쌀쌀한 날씨 속에서 빵과 우유 교통비 기름 값 등 2배로 오른 물가로 인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간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큰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도 열심히 나아갑니다.

케냐 사역보고

▣ 음악 선교센터(찬양신학교)

선교센터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시고 학생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과 연습실이 있고 식당과 예배실 교무실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에는 주변 주민과 가족, 친구들을 위해 재학생과 찬양팀이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는 센터에서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며 실력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희망이 보입니다

▣ 학교사역 및 구제, 급식사역

1. 마사이지역 에세키초등학교 340명, 주자지역 미리마이니 초등학교 720명, 마다레지역 루아라카초등학교 80명, 아마니 어린이 합창단 30명, 아마니 컨서바토리학생 40명과 스텝 등 전체 1,224명의 점심 급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제공한다고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전학을 오고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상승하여 부족한 음식에 모두가 나눠서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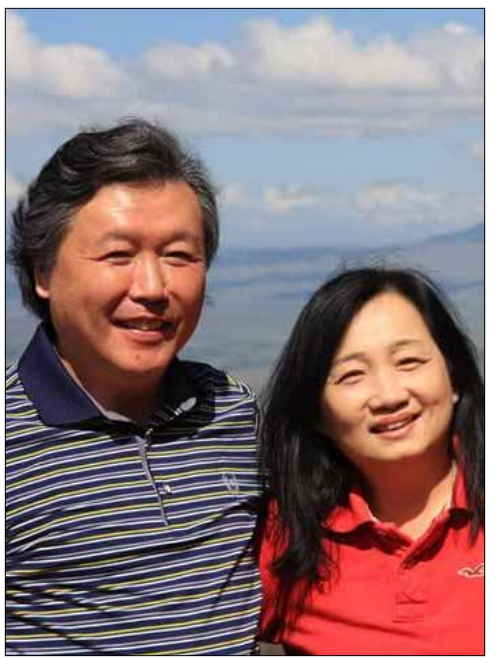
2. 티리리카초등학교 스페셜(장애우)클라스 학생들은 매주 2회씩 교육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소아마비, 앞이 안 보이는 아이, 사회생활에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교육하며 사랑으로 나누며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3. 아마니 음악컨서바토리에서는 현재 40여명의 학생을 위해 성경, 음악이론, 키보드, 기타, 찬양인도법, 합창, 워쉽 앙상블, 성악 특별반 등 찬양지도자를 양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찬양자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재능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찬양자로 키우기 위해 수업료도 안 받으며 시작한 학교로써 자립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4명의 스텝들의 급여와 센터를 유지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교통비도 없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으로 교육은 꼭 필요하며 멀리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도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더욱 배우고 싶어하므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4. 아마니장학생: 개인적으로 장학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의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4명에게 일부 장학금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케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친구들입니다.

5.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학생 헬렌과 뇌성마비로 제대로 이동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엄마가 항상 돌봐 줘야 하는 모세에게 생필품 일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케냐의 물가안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 나가도록
2. 아름답게 세워진 음악선교센터를 통하여 복음으로 잘 훈련 받은 찬양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3. 스텝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신실한 종이 되도록
4. 점심급식을 먹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잘 세워지도록
5.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갖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케냐선교사 김낙형 오정녀 올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쑨-라오 종족

▲ 인구
10,0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종교 60%, 불교 39%, 복음화율 1%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수 세기 전 중국에 살았으나, 쫓겨나 베트남 북부, 라오스 등으로 이주했다. 1950년대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다. 정령 숭배와 불교가 결합된 민속 종교나 소승 불교를 믿는다. 1996년 8월에 있었던 홍수와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한다.

▲ 기도제목
1. 성경 번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2. 복음으로 탄압과 압제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도록 계속되는 자연재해의 고통 가운데 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요즘 부쩍 잠자리들이 집 뒷편 정원에서 무리를 지어 날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잠자리 비행기

나는 잠자리들을 보며 옛 어린 시절, 껌질을 벗긴 삼대나무 끝에 거미줄을 모아 감아서 침을 발라 끈적거리게 만들어가지고 날다가 지쳐 여기저기에 앉아 쉬고 있던 잠자리 날개에 붙여 잡던 것이 마음에 떠올라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미소 짓는 제게 부끄러운 추억이 다가와서 제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던 어느 여름 이맘 때였습니다. 그 때도 오늘처럼 잠자리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 잠자리를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기하다는 듯이 아빠인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것이 뭐야?"

저는 아주 쉽게 "아, 그거 잠자리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큰 딸 아이가 이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영어로는 저 잠자리를 뭐라고 해?"

순간 한국에서 제 어린 시절에 헬리콥터를 잠자리비행기라고 불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이 나서 쉽게 "아, Helicopterfly라고 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맞은 첫 번째 여름방학을 하고 집에서 함께 있던 어느 날 오늘처럼 날고 있는 잠자리를 가리키며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 저 잠자리 있잖아 Helicopterfly이가 아니고 Dragonfly이라고 한다".

순간 나의 무지,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고 사전을 찾아서 옳게 가르쳐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저렇게 날고 있는 잠자리들을 보면서 옛 일을 떠올리며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야고보서 3:1, 2절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늦었지만 다짐해 봅니다. "나이 들어 지내온 세월 속에서 얻은 설익은 지식을 앞세워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자."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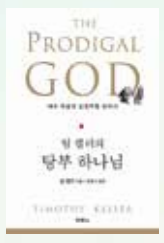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드,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두란노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쇠얀 케고르, 오석환 역주
카리스 아카데미

묵상과 기도
김경은
성서유니온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정한욱
깊은 문고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손성찬
두란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픔
하재성
생명의 말씀사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불볕더위에도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 평균기온이 3.7도 올라가고 해수면이 63센티 상승하여, 전 세계 주거지역의 5%가 침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질 것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지실 때 산들이 녹는데,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와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지구가 뜨거워질 것을 미리 내다보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천체가 뜨거운 불에 녹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불볕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과 달리, 체감온도가 40도에 가까운 날도 자주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달째 불타고 있습니다. 567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275곳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워낙 땅이 넓고, 소방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한 국토의 80%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구호대 150명도 파견되어 진화 활동을 돕고 있는데, 언제 불길이 잡힐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열치열(以熱治熱)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불같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볕더위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17:8)

bible66@gmail.com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주님과 하나 되면 하늘 기쁨을 누립니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라. 예수님 시대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감수해야 했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실이 고난의 연속인데 무엇이 가정과 삶 전부를 드려 심지어 목숨을 바쳐 기독교 신앙을 따르려 했는지 묻게 됩니다.

Larry Hurtado가 쓴 〈1세기에 대체 누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했을까?〉 (Why on Earth Did Anyone Become a Christian in the First Centuries?)라는 제목의 책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 때문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신을 섬겨야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교회를 잘 다니고 체계적인 교회생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점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연합이 일어난 사람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전부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아픔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늘 기쁨을 노래하게 하소서.

preachchrist@kcpc.org

베드로 진서 3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돋보기를 쓰자

어느 날부터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학생 때 시력이 1.2였고 청년 시절에 눈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다. 그런데 시력 검사를 한 안과 의사의 권유로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만사만물이 그렇게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은퇴를 한 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청년 시절에 부친의 강권으로 성경을 읽었고 전도사 때 맡은 기관의 설교자로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내심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그것은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는 내내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또는 어느 날 읽은 곳에서 영감을 받아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해왔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 성경에서 볼 것 알 것 깨달은 것들이 무척 많았다고 생각을 했다.

은퇴를 한 요즘 성경을 계속 읽는데 전에 무심코 그냥 평범하게 읽고 지나온 구절과 내용들이 눈에 띄는 것은 이무슨 조화인고. 전에 그 본문을 읽었었다. 그런데 오늘에야 발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은퇴 후 지금까지 만든 설교가 120개가 넘는다. 아, 안경 도수가 달라지듯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또 다른 돋보기를 쓰고 봐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revpeterk@hotmail.com